

동북아 역사 포커스

NORTHEAST
ASIAN
HISTORY
FOCUS

이야기와 그림, 고구려 속으로

포커스 I 이야기로 만나기

포커스 II 그림으로 만나기

편집자의 글 배현준 동북아역사포커스 제15호 기획편집위원 4

포커스 I

이야기로 만나기

이방에서 온 낯선 왕: 부여의 동명고구려의 주몽 11

이정빈 경희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6세기 고구려가 품은 왕의 남자 온달 20

강진원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연개소문과 고구려의 흥망 30

김진한 경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포커스 II

그림으로 만나기

벽화가 전하는 고구려인의 식생활 40

김근식 전남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학술행사 연구교수

유라시아 전통과 고구려 고분벽화 48

박아림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일반대학원 미술사학과 정교수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 속의 이주민 사회: 60

낯선 이들이 그린 또 하나의 고구려 상(像)

안정준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부교수

체험! 역사현장

부여의 땅 위에 선 고구려, 나뫼산성을 가다 69

배현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중국 '승전 80주년' 열병식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 80

김상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한양대학교 전략정보학과 겸임교수

NAHF 톨아보기

'시선'이 교차하는 '대화'의 장: 89

2025 한일 국제학술회의 <일본에서 본 한일관계>

이경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고대 동아시아 역사상의 이해와 협력으로 가는 첫걸음: 101

2025 한중 역사·고고학 분야 학술회의

이규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일본의 독도 침탈 120년 역사를 돌아보며: 108

2025년 독도연구소 콜로키움

장정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p>Focus I</p> <p>Encountering Through Stories</p>	<p>Dongmyeong and Jumong: Stranger Kings of Buyeo and Goguryeo 11</p> <p>Lee, Jeong-bin</p>
	<p>Ondal: The King’s Man of 6th Century Goguryeo 20</p> <p>Kang, Jin-won</p>
	<p>Yeon Gaesomun and the rise and fall of Goguryeo 30</p> <p>Kim, Jin-han</p>
<p>Focus II</p> <p>Encountering Through Images</p>	<p>Goguryeo’s Food Culture as Seen in Tomb Murals 40</p> <p>Kim, Keun-sik</p>
	<p>Eurasian Tradition and Goguryeo Murals 48</p> <p>Park, Ah-rim</p>
	<p>Immigrant Communities in Goguryeo Seen through Tomb Murals: A Different Goguryeo as Painted by Outsiders 60</p> <p>An, Jeong-jun</p>
<p>Experiencing Historical Sites</p>	<p>Goguryeo on the Land of Puyö: A Travelogue to Luotong Fortress 69</p> <p>Bae, Hyun-joon</p>
	<p>What China’s 80th Victory Anniversary Parade Asks of Us 80</p> <p>Kim, Sang-kyou</p>
<p>NAHF’s Topical Investigation</p>	<p>A Dialogic Space of Intersecting Gazes: The 2025 Korea-Japan International Conference Japan’s View of Korea-Japan Relations 89</p> <p>Lee, Kyung-mi</p>
	<p>A First Step Toward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in Ancient East Asian History 101</p> <p>Lee, Gyu-ho</p>
	<p>Dokdo Research Institute’s 2025 Colloquium on 120 Years of Japanese Infringement on Dokdo 108</p> <p>Jang, Jung-soo</p>

광활한 만주 별판을 누비던 고구려의 역사는 흔히 전쟁과 정복의 연대기로 기억됩니다. 국가의 성립부터 광개토왕의 영토 확장, 수·당과의 전쟁, 그리고 멸망까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정치적 사건과 군사적 성과에 시선을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물결 아래에는 고구려를 이끈 수많은 인물이 있고, 그들이 누렸던 생동감 있는 문화가 숨어 있습니다.

이번 포커스 제15호에서는 한발 물러서서 고구려를 새로운 각도에서 만나 보려 합니다. 연대기적 역사 서술의 무거움을 덜어내고 ‘인물의 이야기’와 ‘벽화의 그림’이라는 두 개의 창(窓)을 통해 당시 고구려의 사회와 문화를 들여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호는 ‘이야기와 그림, 고구려 속으로’라는 제목 아래 「이야기로 만나기」와 「그림으로 만나기」로 두 개의 포커스를 구성했습니다.

포커스 1 「이야기로 만나기」에서는 신화 속 왕에서부터 실제 역사 속 인물까지 다양한 인물의 삶을 통해 고구려 사회의 변화를 조명합니다. 권력, 신분, 운명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가 이야기로 펼쳐지는 과정에서 독자들은 그 이면의 고구려 사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정빈은 부여와 고구려의 건국신화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동명과 주몽 신화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이방에서 온 낯선 왕’이라는 서사 속에서 두 나라가 어떻게 왕권의 신성성과 정당성을 표현하려 했는지를 읽어냅니다. 흥미롭게도 이 ‘낯선 왕’ 서사는 세계 여러 문명권의 신화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유형입니다. 이 서사는 동아시아에서도 부여, 고구려, 후한, 선비 등에서 왕의 권위를 내세우는 데 활용됩니다. 다만 고구려는 부여의 문화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건국신화를 재구성하면서 왕의 이방성과 폭력성을 점차 완화시키고, 대신 인간적이고 통합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라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강진원은 우리에게 ‘평양공주와 바보 온달’로 익숙한 온달이라는 인물을 통해 6세기 고구려의 사회상을 그려냅니다. 5세기 전성기를 지나 왕위 계승 분쟁, 내란, 영토 상실로 위기를 맞은 고구려는 평원왕대에 재정비와 전환을 시도했는데 그 변화의 중심에 온달이 등장합니다. 그는 온달이 단순한 ‘공주의 남자’가 아니라 왕의 개혁 의지 속에서 ‘왕의 남자’로 출세했음을 강조합니다. 온달이 서쪽 변방을 방어하고 남쪽을 공략한 것은 고구려의 국운 회복을 상징합니다. 한강 유역 수복에 실패하고 전사한 온달의 삶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을지문덕으로 이어지는 신흥 세력의 부상과 고구려 군사정책의 전환점을 알리는 이정표로 해석됩니다.

김진한은 7세기 고구려 말기의 집정자 연개소문을 중심으로 권력의 성격과 국가의 흥망을 탐구합니다. 귀족 세력의 저항을 무릅쓰고 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연개소문은 왕을 교체하고 당과 신라에 맞서 국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폭력적 통치와 권력 집중은 민심을 잃고 내분의 씨앗을 남겼습니다. 그가 죽은 후 아들들의 권력 다툼과 배신은 결국 고구려의 멸망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국가의 흥망이 외부 침략보다는 내부 불화와 불의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더 나아가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오늘날의 통치자와 국민에게 권력의 책임과 인화(人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포커스 2 「그림으로 만나기」에서는 고분벽화를 통해 당시 고구려의 사회와 문화를 생생하게 복원해 봅니다. 밥상을 차리고 손님을 맞이하는 일상의 순간들, 이색적인 유라시아 문화의 흔적, 이주민이 남긴 삶의 자국 등 벽화 속 이미지들은 고구려가 역동적이면서도 개방적이고 온화했던 사회라는 점을 무언의 언어로 증언합니다.

김근식은 벽화에 담긴 고구려인의 식생활을 살핍니다. 고구려에는 음식의

양을 줄여 먹는 절식(節食)이라는 풍속이 있었을 정도로 음식 부족이 빈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인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다양한 음식을 만들었으며, ‘손님맞이’에 진심이었습니다. 무용총 벽면을 가득 채운 손님맞이 그림은 고구려인의 따스한 마음을 대변합니다. 각저총 벽화에는 야외에서 장막을 치고 음식을 즐기면서 그 옆에서 씨름 같은 오락도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벽화에 기록된 고구려인의 식생활은 음식이 단순한 생존 수단을 넘어 삶의 방식과 사회적 유대를 전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박아림은 고구려 벽화 속 이색적 모티프를 유라시아 문화권 속에서 추적합니다. 스키타이, 흉노, 파르티아, 사산조페르시아 등 초원문화와의 연관성을 탐구하면서,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아브 벽화에 등장하는 조우관을 쓴 한국인 사신의 존재에 주목합니다. 이는 고구려의 대외교류가 중국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증거입니다. 무용총 수렵도 기마 인물의 파르티안 샷, 각저총의 나무와 결합된 씨름도, 말과 마차 구성, 장천1호분의 서역계 인물상 등은 당시 유라시아 문화가 고구려 문화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벽화 구성입니다. 따라서 고구려 고분벽화를 유라시아 미술의 흐름 속에 재배치하여 고찰해야만, 고구려 미술의 진정한 역사적 위상을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안정준은 벽화를 통해 고구려가 가진 다문화사회의 면모를 소개합니다. 3~4세기 중국의 정치적 혼란을 피해 고구려로 이주해 온 사람들은 새로운 무덤양식인 석실봉토벽화분을 남겼으며, 자신들의 장례전통을 소중히 지켰습니다. 안악3호분과 덕흥리벽화고분의 벽화는 무덤 주인의 복장, 그들이 사용하던 물건, 새겨진 글귀를 통해 망명인들의 신분과 출신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벽화들이 단순히 죽은 자를 위한 기록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주민 공동체의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전시공간’의 기능도 담당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주민 사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구려가 주변국과의 경쟁 속에서도 전략적으로 외부인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전통을 유지할 자유를 허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체험! 역사현장」에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루는 두 편의 글을 실었습니다.

배현준은 부여 땅에 세워진 고구려 산성, 중국 지린성의 나통산성을 답사기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4세기대 요동 지역의 정세와 고구려의 대외확장정책을 배경으로 나통산성이 부여 땅에 축조된 역사적 맥락을 살피고, 중국에서 정책적으로 관광지 개발을 진행했지만 현재는 개발이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현장의 모습에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김상규는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항일전쟁·세계반과시즘전쟁 승리 80주년’ 열병식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 행사를 단순한 과거 전쟁의 추모를 넘어, 과거의 기억을 현실의 권력으로, 역사적 서사를 현재의 외교언어로 재해석한 ‘기억의 정치’로 평가합니다. 한편 최신식 무기 체계의 전시는 ‘전쟁의 기억’을 ‘미래의 자신감’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열병식에서 보인 시진핑, 푸틴, 김정은이 한 무대에 선 장면은 북중러 연대의 공고화를 상징하며, 이는 한미일 결속과 명확한 대비를 이룹니다. 그는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지키면서도 중국과 경제·문화적 협력을 병행하는 ‘이중 대화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NAHF 톨아보기」에서는 지난 7~10월까지 재단에서 개최한 주요 학술회의와 콜로키움의 성과를 소개합니다.

이경미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과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7월에 개최한 한일 국제학술회의 <일본에서 본 한일관계>를 소개합니다. 일본 내 한국 관련 차세대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한일관계의 사회·역사·정치적 쟁점을 폭넓게 논의한 이 행사는 한일 양국의 젊은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세대 간 소통 강화, 지속적 교류 기반 마련이라는 미래지향적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특히 역사인식을 둘러싼 학문적 현상이 공감과 비판, 대화를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규호는 8월에 개최한 <한중 역사·고고학 분야 학술회의>를 소개합니다. 이 회의는 한중의 교류와 갈등(창해군·현도군 설치, 순수비 비교, 동부유라시아론 검토), 7세기 이후 국제 정세 변화(당의 요동 군사작전, 발해 도성과 고분군 연구)를 다루었습니다. 발표자 간에 자료 해석의 차이가 드러나기도 했지만, 모두 지속적인 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이 학술회의는 단순한 연구성과 공유를 넘어 연구자들 간의 직접적인 대면과 소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한중 역사 갈등 해소의 근본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장정수는 독도연구소에서 10월에 개최한 콜로키움을 소개합니다. 이 콜로키움에서는 120년에 걸친 일본의 독도 침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일본의 반복되는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 초기 지도와 외교문서를 통한 침탈 과정, 지정학적·국제법적 논점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독도 연구도 단순한 반박을 넘어 시기별 정책 변화와 역사적 맥락, 적극적 자료 발굴과 논리 보강이 필요함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독도 침탈의 역사를 성토했는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역사 서술과 학제 간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앞으로 독도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했습니다.

올해 발간된 세 권의 『동북아역사포커스』는 제12호 「식민지 유산의 그림자

편집자의 글

와 발현», 제13호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다시, 한일관계», 제14호 「러시아의 전쟁: 한반도에서 우크라이나까지」와 같이 근현대사와 관련된 주제였습니다. 이번 호는 앞 호들과 천 년 이상의 시간차가 나는 고구려사 관련 내용입니다. 다양한 이야기와 그림을 통해 익숙하면서도 다소 어려운 고구려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북아역사포커스 제15호 기획편집위원
배현준

포커스 I

이야기로 만나기

**이방에서 온 낯선 왕:
부여의 동명고구려의 주몽**

이정빈 경희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6세기 고구려가 품은 왕의 남자 온달

강진원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연개소문과 고구려의 흥망

김진한 경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이방에서 온 낯선 왕

부여의 동명과 고구려의 주몽

이정빈 경희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1. 건국신화 속 이방의 구성과 왕권

부여와 고구려의 건국신화는 유사하다. 천손의 신이한 출생과 유기-비범한 능력과 박해-탈출과 위기-도강과 건국이라는 서사 구조와 주요 내용이 닮았다. 주인공 동명과 주몽(추모)이 이방인이었다는 점도 같다. 동명은 탁리국에서 왔다고 하였고, 주몽은 부여에서 왔다고 하였다. 그런데 비단 부여와 고구려만 아니라 고대 중국과 북아시아·중앙아시아·서아시아를 비롯해서 세계 각지의 건국신화·시조신화 중에서도 비슷한 내용과 서사 구조를 담고 있는 것이 많다.

인류학자 마셜 살린스(Marshall Sahlins, 1930~2021)는 “지배자는 토착민과 기원이 다르다. 그들은 하늘, 혹은 더 많은 사례에서 다른 종족 출신이다. 어떤 쪽이든 왕은 이방인(foreigner)이다”라고 하였다. 그를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 제시된 것처럼 세계 각지의 많은 신화에서 왕은 이방인이었다. 이방은 탁리국·부여와 같은 지상의 인간계만 아니라 천상·수중의 신계(神界)를 포함하였다. 부여·고구려의 건국신화도 마찬가지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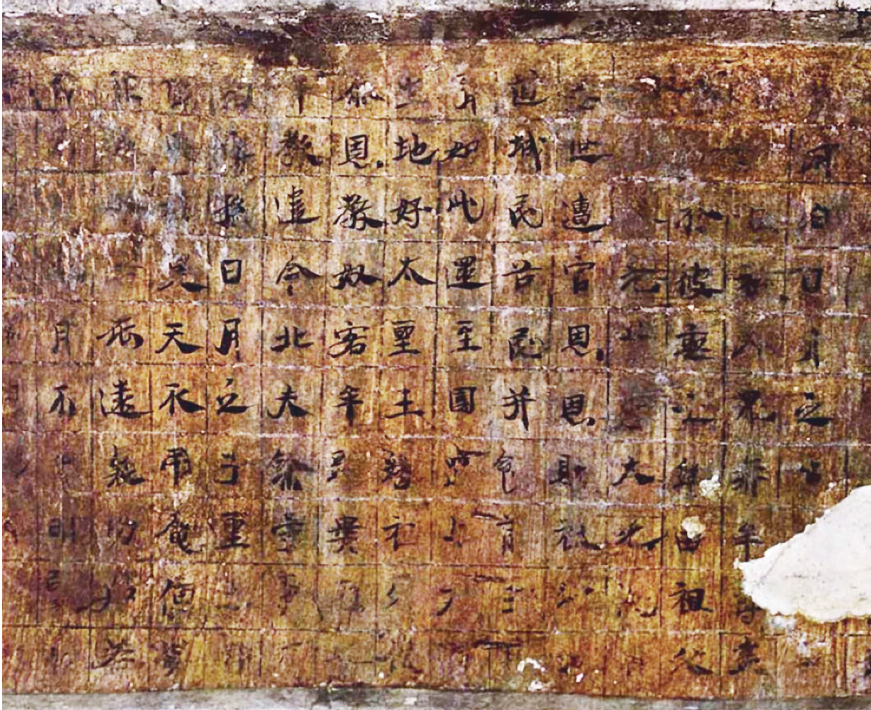
천상·수중의 신계는 지상의 인간계와 비교해
상하의 수직적 공간에 위치하였다. 이를 ‘수직적 이방’이라고 부를 수 있다.
탁리국·부여와 부여·고구려는 남북의 수평적 공간에 존재하였다.
이를 ‘수평적 이방’이라고 부를 수 있다.

”

동명·주몽의 부친은 하늘의 신으로 천상 신계의 이방인이었다. 주몽의 모친은 하백(河伯)의 딸이었다. 하백은 강의 신으로 주몽의 모친은 수중 신계의 이방인이었다. 천상·수중의 신계는 건국신화 속 원초적 이방이었다. 천상·수중의 신계는 지상의 인간계와 비교해 상하의 수직적 공간에 위치하였다. 이를 ‘수직적 이방’이라고 부를 수 있다. 탁리국·부여와 부여·고구려는 남북의 수평적 공간에 존재하였다. 이를 ‘수평적 이방’이라고 부를 수 있다.

동명·주몽은 비범하였고, 위기의 순간에 돼지·말·개·새·물고기·자라 혹은 갈대·거북이 등 각종 동·식물이 조력하였다. 신이한 능력의 소유자였다. 주몽·동명은 하늘의 신과 소통할 수 있었다. 주몽의 경우 신계로 귀환하였다. 동명·주몽은 신적 존재였다. 따라서 이들의 혈통을 이어받은 부여·고구려의 국왕은 신의 후손으로, 이는 왕권에 정당성 즉 권위를 부여하였다. 수직적 이방은 왕권의 원천으로 성스러운 장소였다.

동명의 모친은 탁리국왕의 시비(侍婢)였고, 주몽의 모친은 부여왕에게 유폐된 처지였다. 신보다 인간에 가까운 면모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6세기 중반 이후 고구려 사회에서 주몽의 모친은 부여신(夫餘神)으로 추앙받았다. 주몽을 잉태하였기 때문이었다. 주몽의 모친은 신계와 지상의 인간계를 매개하였다. 천상의 신계와 지상의 인간계를 매개하였던 공간, 즉



모두루묘지 모두루의 선조는 북부여 출신으로 추모성왕을 따라 고구려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부여 출신 귀족 가문의 족조선승이 건국신화와 결합한 일면을 보여준다.

출처: db.history.go.kr/common/imageViewer.do?levelId=gskh_001_0020_0050

탁리국·부여란 수평적 이방 역시 성스러운 장소로 인식되었다. 예컨대 5세기 전반에 작성된 모두루묘지에서 “하백의 손자이자 일월(日月)의 아들인 추모성왕(鄒牟聖王)은 원래 북부여 출신이었으니, 천하사방은 이 국군(國郡)이 가장 성스럽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였다.

부여의 건국신화는 1세기 후한의 왕충(王充, 25~104)이 저술한 『논형』에 보인다. 고구려의 건국신화는 414년에 건립된 광개토왕비와 그 무렵

의 정보를 바탕으로 편찬된 『위서』에 전한다. 건국신화의 주요 내용은 1세기 부여와 5세기 고구려에서 국가적으로 공인된 것으로, 왕권의 입장을 반영하였다. 그 원형은 어떠하였을까.

2. 왕권의 이질성과 ‘낮선 왕’ 서사

『삼국지』 동이전에서 궁·위궁, 즉 태조왕(재위 53~146)과 동천왕(재위 227~248)은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뜨고 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 동천왕은 태조왕과의 혈연적 관계를 강하게 의식하였다. 동천왕은 장성하자 강건하고 용맹하였다고 하였다. 그의 뛰어난 자질은 태조왕과 같은 신이한 출생에서 비롯하였다고 선전되었을 것이다. 3세기 중반 동천왕대 고구려 왕실에서는 태조왕을 시조처럼 중시하였고, 그의 신이한 출생 이야기는 시조신화처럼 기능하였다고 보인다.

그런데 『삼국지』 동이전을 보면 태조왕·동천왕의 신이한 출생이 고구려 사회에서 배척된 것처럼 여길 수 있다. 동천왕의 신이한 출생을 두고 “국인이 미워하였다(國人惡之)”고 하였기 때문이다. 2세기 후반 후한에서 활동한 응소(應劭)는 『풍속통의(風俗通義)』에서 속설에 따르면 태어나면서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것을 오생이라고 하였는데, 오생으로 태어난 아이는 부모를 해친다고 하였다. 『삼국지』 찬자는 태조왕·동천왕의 신이한 출생이 속설 속의 오생이었다고 보고 “국인이 미워하였다”고 적었을 수 있다.

하지만 『후한서』 동이전에서는 태조왕의 신이한 출생을 두고 “국인이 복종하였다(國人懷之)”고 하였다. 3세기 중반 고구려에서는 태조왕·동천왕의 신이한 출생을 선전하였다고 하였다. 이를 감안해 보면 『후한서』 동이전이 태조왕·동천왕의 신이한 출생에 대한 고구려 왕실의 입장을 말

“
세계 각지의 신화를 종합해 보건대, 토착민은
지배자를 이방인으로 묘사하였다. 지배자는 토착민과 다른 이질적 존재,
다시 말해 낯선 왕으로 감각되었고 … 잔학한 폭력과 비도덕적 야만 행위를
통해 권력을 구축하는 공포의 신현이었다고 하였다.
”

해준다고 생각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인이 미워하였다”고 한 『삼국지』 동이전의 서술이 편견에 따른 거짓이었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춘추시기 정(鄭)의 장공(莊公)도 오생이었다고 하는데, 이에 그의 모친은 “경(警)하였다”고 하였다. 경(警)은 ‘놀라고 두렵다’의 뜻으로 외(畏)의 뜻을 가진 오(惡)와 통한다. 혐오에 내재된 공포심이었다. 인류학자 피에르 클라스트르(Pierre Clastres, 1934~1977)는 다양한 형태의 비국가 사회에서 권력의 발생이 보편적인 발전이 아닐 수 있다고 하였다. 권력의 이질성에 주목한 것이다. 마셜 살린스도 이러한 관점을 수용하였다.

마셜 살린스는 권력이 “인간성에 내재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였고, 이에 토착사회의 외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았다. 세계 각지의 신화를 종합해 보건대, 토착민은 지배자를 이방인(foreigner)으로 묘사하였다. 지배자는 토착민과 다른 이질적 존재, 다시 말해 낯선 왕(stranger-king)으로 감각되었고, 토착민과 같은 도덕과 질서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잔학한 폭력과 비도덕적 야만 행위를 통해 권력을 구축하는 공포의 신현(神現, terrible epiphany)이었다고 하였다. 이때 폭력과 야만 행위의 전형으로 제시한 것이 존속살해와 근친상간과 같은 최악의 범죄였다. ‘낯선 왕’ 서사였다.

후한 사회에서 오생은 ‘부모를 해칠 운명’으로 믿었다고 하였다. 존속살



오이디푸스 신탁에 따라 버림받은 왕자였다. 부친 살해와 근친상간의 운명으로 태어났다.

출처: commons.wikimedia.org/wiki/File:The_Plague_of_Thebes.jpg?uselang=ko

해의 운명으로, 사회의 도덕과 질서를 위협할 수 있었다고 여긴 것이다. 그러므로 공포심이 생길 수 있었다. 비단 오생만 아니라 신이한 출생의 이야기를 가진 신화 속의 많은 ‘낮선 왕’도 피지배층에게 그와 같은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그리고 신이한 출생에 대한 공포심은 지배자의 이질성과 표리를 이루며 권력에 대한 복종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선비 단석괴의 사례가 참고된다. 그 역시 신이한 출생 이야기가 전하는데, 부락민이 ‘외복(畏服)’하였다고 한다. 이때 복종(服)이 단석괴의 뛰어난 자질에 따른 것이었다면, 공포(畏)는 그의 신이한 출생 때문이었을 것으

로, 공포의 감정과 복종의 태도가 서로 모순적이지는 않은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권력은 ‘낮선 왕’ 서사를 용인·수용하였고, 왕권의 권위를 내세우는 데 활용하였다고 이해된다.

『삼국지』 동이전에 보이는 오(惡)와 『후한서』 동이전에 보이는 회(懷)도 각기 외(畏)와 복(服)을 의미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惡)에 주목해보자면, 3세기 중반 고구려 사회에서 태조왕과 그를 계승한 동천왕은 피지배층에게 이질적이고 공포스러운 왕, 즉 ‘낮선 왕’이었다고 짐작된다.

현재 1세기 부여, 5세기 고구려 건국신화의 원형은 분명히 알 수 없다. 다만 3세기 중반 고구려에서 시조처럼 중시된 태조왕이 ‘낮선 왕’으로 감각되었다고 하면, 건국신화의 원형 역시 ‘낮선 왕’ 서사를 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부여 건국신화의 원형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특히 건국신화 속의 수직적 이방이 그러하였을 것으로, 이는 본래 왕권의 이질성과 그에 대한 공포심을 보여주는 서사적 장치였다고 생각한다.

3. 왕권이 전유한 ‘낮선 왕’ 서사

동명·주몽의 모친은 탁리국왕·부여왕의 후궁과 같은 처지였다. 탁리국왕·부여왕은 동명·주몽의 양부와 다름이 없었다. 주몽과 부여의 왕자는 항상 함께 사냥하고 놀았다고 하였다. 형제와 같았던 것이다. 그런데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서 주몽과 부여왕은 갈등하였고, 그들의 갈등은 대무신왕대까지 부여왕 대소와의 대립·전쟁으로 이어졌다. 세대를 거듭하며 갈등이 고조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고구려-부여 관계 기사는 한 편의 장편 서사를 이루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장편 서사의 대미는 대무신왕이 부여왕 대소를 참수하고 부여를 병탄

포커스 I

한 장면이었다. 고대·중세의 여러 나라에서 왕은 가부장 부친으로, 국가·사회는 가부장의 가족으로 감각하였다. 이러한 감각에서 대무신왕의 대소 참수는 존속살해에 따른 가부장의 교체를 의미하였다.

3세기 중반까지 고구려와 부여는 독립적인 국제관계를 지속하였다. 이를 감안하면 본래 건국신화 속에서 갈등과 폭력의 신화소·서사는 후대와 비교해 더욱 풍부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3세기 후반 이후 고구려와 부여의 독립적인 국제관계는 일변했다. 부여는 모용선비의 공격을 받아 쇠퇴하였고, 이후 적지 않은 수의 부여 지배층이 고구려 귀족으로 편입하였다. 고구려는 부여의 건국신화를 전유하였고, 여러 부여 귀족의 족조전승이 그와 결합하였을 것이다. 3세기 후반 이후 건국신화는 재구성되었다고 보인다.

재구성된 건국신화에서 새로운 가부장은 부여가 아닌 고구려의 왕이었다. 이제 부여의 국가와 사회도 고구려왕의 가족이었다. 따라서 부친·형제에 대한 존속살해의 폭력과 야만은 용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부자·형제의 갈등·대립은 평화적으로 해소되고 가족은 재결합해야 했다. 이 점은 부여의 건국신화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에 따라 부여·고구려에서 수평적 이방이었던 탁리국·부여는 성스러운 장소로 재인식되었을



<둔: 파트 2> 포스터

신화에 기반을 둔 많은 창작물에서 '이방인 왕자'를 설정한다.

출처: kobis.or.kr/common/mast/mov/e/2024/02/1e9c09d38f7d4bcf8247e145a87de012.jpg

“
신화 속에서 모친은 수직적 이방 즉
천상의 신계가 가져올 수 있었던 이질성과 공포심을 완화할 수 있었고,
가족 재결합 즉 통합을 표상할 수 있었다.
”

것으로 생각된다.

마셜 살린스는 신화 속 남성과 여성이 각기 하늘과 땅, 이방과 토착 사회, 전사와 농민, 폭력과 평화 등으로 은유되는데, 왕권은 양자의 결합을 통해 모순을 해소하면서 탄생한다고 하였다. 신화에서 동명·주몽의 모친은 신보다 인간에 가까운 면모를 보여준다고 하였는데, 그들은 탁리국·부여에 남아 있었다. 이 점에서 동명·주몽의 모친은 탁리국·부여의 영역과 인민을 대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신화 속에서 모친은 수직적 이방 즉 천상의 신계가 가져올 수 있었던 이질성과 공포심을 완화할 수 있었고, 가족 재결합 즉 통합을 표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수평적 이방의 서사적 기능이자 왕권 확립 이후 건국신화가 재구성되면서 한층 강조된 내용이었을 것이다.



이정빈(李廷斌, Lee, Jeong-bin)

경희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경희대학교 사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부교수를 역임하였다. 고구려사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를 공부하고 있다. 「단군신화의 비대칭적 세계관과 고조선의 왕권」, 「이방에서 온 낯선 왕-부여·고구려 건국신화의 원형과 왕권-」과 같은 논문을 통해 신화의 사유에 주목하고 있다.

6세기 고구려가 품은 왕의 남자 온달

강진원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1. 6세기의 위기와 전환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였다. 그도 그럴 것이 광개토왕과 장수왕이 그즈음 재위하였을 뿐 아니라, 5세기를 거치면서 고구려는 만주와 한반도에서 가장 강성한 세력을 일구었기 때문이다. 484년(장수왕 72) 고구려 사신단이 북위에 머물 때, 북위에서 고구려가 강하다 여겨 이들의 숙소를 남제(南齊) 사신단 다음가는 데 둔 것은 그 점을 잘 드러낸다.

그러나 6세기 들어 이러한 상황에 그들이 드리웠다. 장수왕의 뒤를 이은 문자명왕 때(491~519)까지는 그런대로 종전의 흐름을 이어갔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안장왕·안원왕·양원왕의 치세는 그렇지 못하였다. 광개토왕의 현손(玄孫)이자 장수왕의 증손인 안장왕은 여러 방면에서 애를 썼지만 531년 죽임을 당했다. 그 뒤 왕좌에 오른 안장왕의 동생 안원왕은 재위 기간 천재지변에 시달렸으며, 545년 다음 왕위를 두고 벌어진 외척 사이의 대규모 유혈 충돌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러한 혼란 속에 즉위한 양원왕은 어린 나이에 등극하였을 뿐 아니라 나라 안팎의 상황

“

6세기 후반을 ‘반전의 시기’라 하기는 무엇하여도,
이전의 혼돈을 그럭저럭 수습한 ‘전환의 시절’이라 부를 수 있을 터다.
평원왕의 사위 온달이 이름을 떨친 시기는 바로 이 무렵이다.

”

도 좋지 못하여 돌궐과 전투가 벌어지고 간주리(干朱里)의 난도 일어났다. 무엇보다 551년 백제·신라에 한강 유역을 빼앗겼다. 6세기 전반 고구려에는 왕의 피살과 내전, 그리고 영역 상실과 같은 거대한 시련이 계속되었다. 바야흐로 ‘위기의 시절’이라 하겠다.

다만 시일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국면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559년 양원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평원왕(평강왕)은 안으로 정국을 안정시키고 장안성(長安城)으로 도읍을 옮겨 도성 체제를 재편하였으며, 밖으로는 동아시아 국제 정세 변동에 발맞추어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결과, 어지럽던 상황이 어느 정도 제어되었다. 590년 영양왕이 평원왕의 자리를 계승한 후에도 그러한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따라서 6세기 후반을 ‘반전의 시기’라 하기는 무엇하여도, 이전의 혼돈을 그럭저럭 수습한 ‘전환의 시절’이라 부를 수 있을 터다. 평원왕의 사위 온달이 이름을 떨친 시기는 바로 이 무렵이다.

2. 왕의 남자가 출세한 속사정

『삼국사기』 온달전에서는 당시 그를 “우온달(愚溫達)”이라 불렀다고 한다. 바보가 온달을 일컫는 대명사가 된 것은 이 ‘우(愚)자’ 탓이다. 그런데 이 한자는 어리석음을 뜻하기도 하나 우직하거나 고지식하다는 의미도 담고

있어, 온달을 오늘날에 통용되는 바보 같은 인물로 단정하기는 힘들다. 온달의 이후 행적을 보면 더욱 그러하니, ‘우온달’이란 표현은 온달의 생애를 극적으로 드러내고자 더해진 과장이 아닐까 한다.

온달전에는 온달이 가난하여 구걸로 연명하였으며, 행색이 볼품없었다고 한다. 지배층으로 여기기 힘든 건 물론이요, 경제적으로 보자면 평민 중에서도 하위 계층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온달이 정말 그러하였는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당시가 고대사회인 이상 신분의 중요성은 재언할 필요가 없는데, 온달이 기록과 같은 처지였다면 훗날 임금의 사위가 되고 군사를 통솔하였다고 이해하기 석연치 않은 까닭이다.

이에 온달의 실제 신분을 지배계급, 곧 귀족으로 보기도 한다. 온달이 부마가 되고 대형(大兄)이란 관등에 오른 데 착안하여 귀족의 범주에 들어갔으리라 짐작하기도 하고, 온달전에 언급된 불우한 환경을 근거로 정쟁 속에 도태된 몰락 귀족으로도 가늠한다.

반면 기록과 같이 평민이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당시 국왕이 강력한 권력을 수립하기 위해 신흥 세력과 제후를 꺾었으리라는 점이나, 온달과 평강공주의 혼인이 애초 환영받지 못한 데서 그가 정상적인 통혼권 밖의 인물이었을 것이란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편 그가 외래 인사를 아버지로 둔 혼혈인이라고 가정한 시각도 존재한다.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일대에 있던 강국(康國)의 왕가가 온씨였던 점에 주목하여, 그곳에서 고구려로 귀화한 이의 자식이라는 것이다. 온달의 ‘온’이 성씨일지 하는 의문은 차치하여도, 온씨가 당시 중국에도 존재하였고 중앙아시아와 고구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 혼혈이라 해도 중국이나 북방 종족과의 연관성을 찾는 것이 타당하겠다. 온달이 사람들의 놀림을 받은 이유를 혈통 문제에서 찾은 점은 인상적이다.

“
여성의 발언권이 제한된 당시 분위기를 고려하면,
‘일반적인’ 통혼 범위 밖의 인물인 온달이 왕실의 일원이 되고
출세하는 데 평원왕의 강력한 의지가 개입되었다고
이해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

온달의 출신을 명확히 판별하기는 어렵다. 다만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어찌되었든 그가 세상에 나아감에 왕권의 안배가 함께하였다는 것이다. 온달은 공주의 선택으로 부마가 되고, 외세의 침입을 물리친 뒤 평원왕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하였다. 온달전에는 온달과 공주의 혼인을 평원왕이 반대한 것처럼 나온다. 그러나 여성의 발언권이 제한된 당시 분위기를 고려하면, ‘일반적인’ 통혼 범위 밖의 인물인 온달이 왕실의 일원이 되고 출세하는 데 평원왕의 강력한 의지가 개입되었다고 이해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평원왕의 국정 쇄신이 인사에도 미쳤으리란 점은 짐작 가능한데, 이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온달 아닐까 한다. 그렇기에 그를 ‘공주의 남자’로만 보는 것은 실상에 맞지 않는다. 시대가 품은 ‘왕의 남자’, 그것이야말로 온달의 다른 이름이라 하겠다.

3. 서쪽을 막고 남쪽을 뚫고

온달전에 따르면 온달은 사냥대회에서 솜씨를 발휘한 뒤 전장에서 이름을 떨쳤다. 교전 대상은 둘로 나뉜다.

하나는 후주(後周), 즉 북주(557~581)다. 무제가 침략했을 때 평원왕이

“
서쪽을 막고 남쪽을 뚫고자 한
온달의 행보는 6세기 전반의 혼란을 극복하고
기지개를 펴려는 고구려의 지향 또한
그러한 틀 안에 있음을 보여 준다.
”

몸소 나서니, 온달은 선봉이 되어 수십 급을 베는 전공을 세워 승리의 견인차가 되었다 한다. 북주는 원래 화북 서부에 자리한 국가였고, 이때 고구려와 접한 나라는 북제(550~577)였다. 그런데 577년 북제가 북주에 멸망함으로써 고구려와 맞닿게 된 것이다. 고구려에 쳐들어온 북주 무제의 재위 기간은 560~578년이다. 그러므로 고구려와 북주 무제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는 577~578년으로 좁혀진다. 다만 현재 전하는 사료에서 이즈음 양국 사이의 교전을 언급한 사례가 없어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에 북주 무제가 북제 부흥세력과 고구려의 연계를 두려워하여 침공하였다 상정하기도 한다. 교전의 주체는 북주가 아니라 북제 멸망 이후 580년대 초까지 요서 일대를 장악한 고보녕(高保寧, ?~583) 집단이라고도 여기면서, 북제와 싸운 일이 잘못 기록되었다고 짐작하기도 한다. 다만 어떻게 보든 온달이 서방 세력과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것은 인정하여도 좋지 않을까 한다.

다른 하나는 영양왕 집권 이후 온달이 빼앗긴 한강 유역을 되찾겠다고 출정한 일로, 정확한 시기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영양왕이 즉위한 590년 무렵, 591년 11월 전후, 593~594년을 주목하기도 하고, 603년(영양왕 14) 고구려 장수 고승(高勝)이 북한산성을 공격하였으나 친히 나선 진평왕이 이를 물리친 전투를 들어, 온달이 개명한 이름이 고승이라고도 추

포커스 I



아차산성 출처: 동북아역사넷

정한다. 어쨌든 영양왕 재위 초반의 사건일 터다.

이때 온달은 아단성(阿旦那城) 아래서 신라군과 싸우다 흐르는 화살(流矢)에 맞아 죽는데, 아단성의 후보지로 손꼽히는 곳은 서울 광진구의 아차산성과 충북 단양의 온달산성이다. 당시 신라가 이미 한강 유역을 영유한 상태이고, 온달산성은 전형적인 신라 산성이라 아차산성일 가능성이 크다.

온달의 군사 활동을 간추리면 서쪽 경계를 방어하고 남쪽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광개토왕이 요동 지역을 차지한 이래 고구려의 군사 기조는 서방에서 안정을 꾀하고, 남방으로 세력을 뻗히는 것이라 헤아려진다.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서 패권을 구축한 이상, 지대물박(地

大物博)한 중원 제국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한반도 중남부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노선은 상식적인 움직임이다. 서쪽을 막고 남쪽을 뚫고자 한 온달의 행보는 6세기 전반의 혼란을 극복하고 기지개를 펴려는 고구려의 지향 또한 그러한 틀 안에 있음을 보여 준다.

4. 좌절된 현실 위 아로새긴 이정표

온달은 고구려를 새롭게 하려 한 평원왕의 선택으로 입신(立身)한 뒤 무공을 세워 양명(揚名)하였으나, 한강 유역 수복의 뜻은 이루지 못한 채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온달전에는 온달의 시신을 둔 관이 움직이지 않아 공주가 온달을 위로한 뒤에야 장사 지낼 수 있었다고 전한다. 이는 실지 회복에 실패한 아쉬움이 온달 개인의 좌절을 넘어, 사회 전반에 만연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일화가 아닐까 한다. 덧붙여 온달이 애초 부마가 될 만한 자격이 아니었기에, 그의 좌절이 주는 애통함이 기층사회 깊숙이 뿌리 내려 오늘날까지 기록으로 남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결과만 놓고 보면 온달의 삶은 실패로 끝났다고 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역사의 긴 호흡에서 바라볼 때는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 온달 사후 고구려사의 전개 양상에서 온달이 걸어간 길이 중첩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먼저 온달처럼 원래 주요 지배층이었다고 여기기 힘든 이의 활약이 눈에 띄니,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을지문덕이다. 을지문덕은 집안 내력을 알 수 없다는 데서 나타나듯 신흥 세력의 일원으로 생각된다. 612년 고구려-수 전쟁 시 수에서 인지할 정도의 위명을 지녔던지라, 엄청난 뒷배경이 없어도 중앙정계 핵심인사가 될 정도의 흐름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아차산의 온달과 평강공주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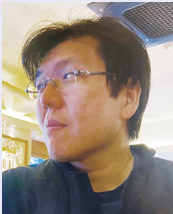
출처: commons.wikimedia.org/wiki/File:Achasan_GeneralOndal.jpg

있다.

다음으로 7세기 고구려의 군사 기조가 온달의 행보와 맞닿아 있다. 영양왕은 중원 제국과 전쟁까지 벌어져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신라·백제와 교전을 계속하였으며, 영류왕이나 보장왕 때 연개소문도 그와 다르지 않았다. 물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움직임은 5세기 이래 하나의 방침이겠으나, 6세기 전반 한껏 웅크렸던 고구려가 6세기 후반 이후 다시금 적극적인 군사활동을 도모할 때 온달이 선두에서 활약한 사실은 가벼이 넘길 수 없다. 큰 흐름에서 신호탄의 역할을 한 셈이다.

“
현실에서 온달의 바람은 좌절되었지만,
그의 삶은 당대에 하나의 이정표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하겠다.
우리가 6세기 고구려사를 바라볼 때, 온달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

따라서 현실에서 온달의 바람은 좌절되었지만, 그의 삶은 당대에 하나의 이정표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하겠다. 우리가 6세기 고구려사를 바라볼 때, 온달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강진원(姜辰垣, Kang, Jin-won)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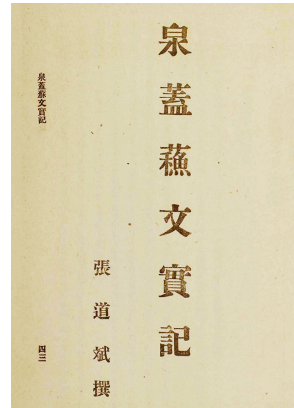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대학원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 고대사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중이며, 고구려발해학회 총무 이사를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고대사학회 평의원이다. 사회 현상과 의례 및 문화를 통해 나타나는 당대의 실상에 관심이 많다. '젊은역사학자모임'과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학계와 시민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자 노력하고 있다.

연개소문과 고구려의 흥망

김진한 경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1. 왜, 연개소문인가

665년(혹은 666년) 연개소문이 죽었다. 전통시대에는 임금을 죽인 대역죄인으로, 나라를 빼앗긴 근대에는 당에 맞선 민족의 영웅으로 평가받았다. 연개소문은 고구려 말 최고 집정자의 자리에서 천하를 호령했던 만큼 멸망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나버린 일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사람의 일은 되풀이된다. 시대와 사람이 만나 이 땅에서 빛었던 고구려사의 마지막 순간을 연개소문의 일생을 따라가며 생각해보자.



『천개소문실기』(장도빈 찬, 1920, 한성도서)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2. 가문의 내력과 벼슬길

연개소문은 ‘연개금’이라고도 한다. 언제 태어났는지 알려주는 자료는 없다. 『삼국유사』가 인용한 『고려고기(高麗古記)』에 따르면, 수 양제의 원

“
연개소문 집안이 힘 있는 귀족의 일원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십여 세 무렵에는 벼슬길로 나아갔을 것이다.
”

한을 갚기 위해 수의 대신 양명(羊膺)이 고려에 태어났는데 그가 연개소문이라고 하였다. 지은이가 설정한 인과관계는 믿기 어렵지만 수 양제의 사망년(618)과 연개소문의 출생 시점이 비슷한 데 착안하여 이러한 설화가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연개소문 가문에 대해 학계에서는 평양 천도 이후 등장한 신진세력으로 이해한다. 『신당서』 고려전에는 연개소문이 “스스로 물속에서 태어났다”고 하였다. 전남생묘지명에도 “먼 조상의 뿌리가 샘에서 나왔다”고 하여 ‘연(淵)’씨와 관련성을 말해준다. 귀족 가문들은 저마다 집안에 대한 내력이 이어져 오는데, 이를 족조전승(族祖傳承)이라고 부른다. 족조전승 중에는 왕실과의 친연성이나 국가에 대한 공훈을 강조하기도 한다. 하지만 연개소문 가문의 족조전승은 그런 면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진세력으로 추정하는 근거가 된다.

전남생묘지명에 따르면, “증조부는 자유이며 할아버지는 태조로서 다 막리지를 역임했고 아버지 개금은 태대대로였다.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쇠를 잘 부리고 활을 잘 쏘아 군권을 아울러 쥐고 모두 나라의 권세를 오로지했다”고 한다. 연씨 집안이 군사와 관련해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한다.

『삼국유사』에는 “15세에 총명하고 무예가 뛰어나다 하여 당시 무양왕(武陽王)이 그 어짊을 듣고 불러 신하를 삼았다”고 나온다. 연개소문 집안이 힘 있는 귀족의 일원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십여 세 무렵에는 벼슬길로 나아갔을 것이다.

大唐張特進行右衛大將軍檢校右羽林軍仗內供奉上柱國守國公贈
 中書侍郎兼檢校相王府司馬王德真撰 朝議大夫行司勳郎中
 若美虹光韞石即任土而輝山嶺照涵波亦回川為媚水洎乎排朱閣登紫
 於興壤况復珠躡角五垂景宿之精芒碧海之罕感名山之氣色舉鍾榮順
 而登廊廟移根蟠壑申大厦之隆林韓職加庭奉元戎之切籌與夫階珠為
 焉公姓泉諱男生字元德遠東郡平壤城人也原夫遠系本出於泉既託神
 於九苞鶴起青田稟靈姿於千載是以空桑誕靈靈竹隨波並降胤精式標
 瓊檻曾祖子遊祖太祚並任莫離父益益任太對靈乃祖乃父良治
 首蓬山高視確乎伊霍之任公貽厥傳慶并憤乃王公之孫宴翼聯華沛
 塗光玉粹綴陶謙之昂里映珠韜襟抱散朗標靈譽博廣峻不疵於物議
 基兩翫鷹行與鶴迥同傾體仁成夢前還雷於誕後抱信由褒亂驚波於
 陵方項游著不測其淺深縉垣九仞諫者未窺其虛宇年始九歲即授先
 之榮年十五授中莫小兒年八授中莫大元年廿三改任中莫位頭大兄
 軍大將軍母二加大莫離大總錄軍國阿衡元首紹光疇之業士識歸心
 期公照花照萼內有難除之草為幹為楨外有於顛之樹遂使挑海之濱隨
 內款事亦中執方欲出撫邊陲外巡荒甸按編書之舊環請義仲之新官一
 子忽就鯨鯢玉膳長筵俄碎頤復公以共氣望分既飲淚而飛激同盟雨
 之邪且破瑟堅之壘明其為賊鼓行而進仍遣大兄弗德等奉表入朝陳
 海北馳心丹鳳之闈飭躬玄兔之城更遣大兄弗有重中誠幼牆林積
 皇帝照依青丘虎其丹懇賢達產之罪駁雷霆之威丸山未銘得來表其
 子獻誠入朝 帝有嘉焉遂拜公特進太兄知故平壤道行軍大
 慈何力茅相知絲略公率國內茅六城十餘方戶書藉棘門又有木底茅
 物退公入朝總章元年授使持節遼東大都督上柱國玄兔郡開國公食
 大唐命羅蓋馬之營其年火朱 勿共司空英國公李勣相如

천남생모지명 탁본 가운데 '출계(出系)' 부분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3. 욕망의 시대

연개소문은 642년 1월 영류왕의 지시에 따라 장성 쌓는 공사를 감독하였다. 그런데 같은 해 아버지인 대대로 연태조가 죽었다. 당연히 이어받을 것이라 여겼던 ‘대인(大人)’의 자리를 국인(國人)들이 잔인하고 사납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연개소문은 머리를 조아리고 간청하여 겨우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왕과 귀족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뒤 부병(部兵)의 사열식을 핑계로 귀족들을 불러들여 단숨에 제거하였다. 심지어 영류왕의 시신은 훼손하여 구렁텅이에 버리고 영류왕의 조카인 (보)장을 세워 왕으로 삼았다. 역사학계에서는 이를 ‘연개소문 정변’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연개소문 정변에 앞서 당 이세민은 626년 ‘현무문(玄武門)의 변’을 일으켜 형과 동생을 죽이고 집권하였다. 백제 의자왕은 즉위 무렵 친위 정변을 통해 왕권을 강화했다. 일본은 645년 소가씨 정권이 무너졌으며, 신라는 647년 비담의 난이 진압되고 진덕왕이 즉위하였다. 연개소문 정변은 동아시아 각국의 비상한 정세변동의 흐름 가운데 있다. 이는 수·당 통일제국의 등장으로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을 둘러싼 각국 내부의 기조가 정변이라는 폭력적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정변으로 집권한 연개소문이 마주한 가장 시급했던 과제는 흩어지거나 떠난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정변이 정당했음을 증명하는 일이었다. 당시 정변 이후 겪었던 두 사건은 이와 관련해 주목된다.

642년 겨울 평양성, 패기 넘치는 20대의 연개소문은 백제의 대야성 함락으로 초래된 안팎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초조한 마음으로 달려온 40대의 김춘추를 만났다. 연개소문은 보장왕을 통해 군사원조의 대가로

“
당 태종의 정복욕이 빚은 고구려 침략,
백제 의자왕의 신라에 대한 복수전, 고토 회복에 대한 고구려의 집념,
살아남으려는 신라의 처절한 사투 등 누구에겐 ‘이해’로,
누구에겐 ‘생존’으로 얽힌, 어느 하나 파멸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욕망의 시대가 7세기였다.

”

죽령 서북 ‘고구려 옛땅’의 반환을 요구했다. 혹 떼러 왔던 김춘추는 혹을 붙인 것도 모자라 저승길이 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결국 연개소문은 김춘추로부터 반환을 약속받았다. 거짓약속이라면 신라를 공격할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당과의 문제다. 보장왕은 연개소문이 세운 왕이다. 연개소문 입장에서 임금을 죽임으로써 닥쳐올 정치적 혼란과 안팎의 파장을 고려할 때, 가능한 빨리 보장왕의 책봉을 받아내야 했다. 결국 643년 윤6월 보장왕은 책봉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연개소문은 정변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연개소문은 신라와는 영토문제를, 당과는 책봉문제를 통해 정치적 위상을 확보해 나갔다.

당 태종은 보장왕의 책봉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침략의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백제와 신라에 조서를 보내 고구려 공격에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645년 제1차 고구려·당 전쟁이 일어났다. 당은 승승장구하였지만 안시성에서 발목이 잡혀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당 태종의 정복욕이 빚은 고구려 침략, 백제 의자왕의 신라에 대한 복수전, 고토 회복에 대한 고구려의 집념, 살아남으려는 신라의 처절한 사투 등 누구에겐 ‘이해’로, 누구에겐 ‘생존’으로 얽힌, 어느 하나 파멸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욕망의 시대가 7세기였다.

당 태종이 다시 고구려 침략을 준비할 때 방현령은 ‘고구려가 신하의 도리를 어기거나, 백성을 어지럽히거나 중국의 근심이 되는 일이 없다’며 전쟁을 반대했다. 당 고종대 가연충도 당 태종이 실패한 이유를 고구려에 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고구려 침략의 명분이 없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사실상 당의 침략을 격퇴함에 따라 연개소문의 영웅성은 부각되고 집권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우람한 신체에 관복은 금으로 꾸미고 다섯 개의 칼을 차고 다니며, 귀인(貴人)을 밟고서 말을 오르내리는 연개소문이 행차할 때마다 사람들은 놀라 숨는 등 그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4. 잘못 지은 자식 농사, 나라를 망치다

연개소문은 집권한 뒤 병권과 인사권을 쥔 집권적 관직인 막리지에 취임했다. 또한 왕실과 혼인을 맺었으며 주위에 자신의 일가붙이를 두어 독재정권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독재가 강화될수록 이를 벗어나려는 세력과 ‘포스트 연개소문’을 둘러싼 세력의 분화를 가져왔다.

『일본서기』에는 연개소문이 죽을 무렵, 아들들에게 남긴 말이 소개되어 있다. “너희들은 물고기와 물처럼 화합할 것이지 작위를 다투지 말라.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반드시 이웃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연개소문의 유언은 괜한 걱정이 아니었다. 연남생이 뒤를 이어 집권하였고 두 아우 연남건과 연남산은 형이 국내성으로 순행 간 틈을 타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다.

연남생은 자신의 본분을 잊은 채 동생들에 대한 개인적 복수를 위해 당으로 투항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다. 연남생이 망명하자, 고구려



평양성도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를 이탈하는 세력이 줄을 이었다. 안으로부터 무너진 것이다.

668년 9월 평양성을 빠져나온 연남산은 수령 98명을 거느리고 당의 장수 이적에게 나아가 항복했다. 연남건은 끝까지 저항하며 자결을 시도했지만 곧 당군에 사로잡혔다. 승리한 당의 깃발 아래에는 앞잡이가 되어 평양성 함락에 공을 세운 연남생이 있었다. 연개소문의 우려가 현실이 된 순간이다.

한편, 선을 넘어 왕위에 오른 김춘추도 자식이 여럿 있었다. 무열왕은 655년 법민을 태자로 세웠다. 또 다른 아들인 김인문은 대당외교에서 활약하며 신라의 통일에 크게 기여했다. 신라와 당이 결전을 벌였을 때 당은 문무왕의 관작을 빼앗고 숙위로 있던 김인문을 신라왕으로 책봉하여 귀국시키려 했다. 이때 김인문은 간곡히 물러날 뜻을 밝혔다. 『삼국유사』

“

『일본서기』에는 연개소문이 죽을 무렵, 아들들에게 남긴 말이 소개되어 있다. “너희들은 물고기와 물처럼 화합할 것이지 작위를 다투지 말라.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반드시 이웃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연개소문의 유언은 괜한 걱정이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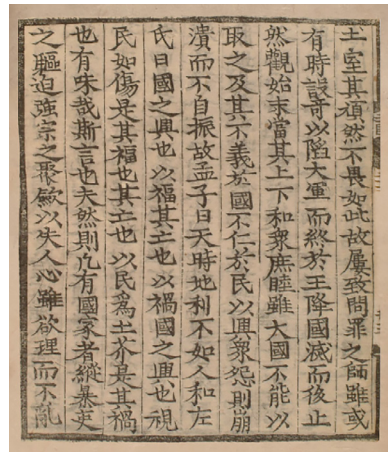
”

에는 김인문이 당의 신라 침략계획을 접하고 의상을 통해 문무왕에게 알렸다고 전한다. 당 고종의 신임을 받았지만 김인문은 이를 활용하여 신라를 흔들지 않았다. 연개소문의 아들들이 서로 권력을 탐하며 불화한 데 비해 무열왕의 아들들은 화합하였다.

5. 다시 연개소문을 생각한다

김부식은 연개소문이 운수 좋게 집에서 죽었으며, 그 아들 남생은 나라를 저버렸음을 꾸짖었다. 그러면서 나라의 흥망에 인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였다.

상하로 못사람이 화목하면 비록 큰 나라라도 능히 취할 수 없다. 나라에 불의(不義)하고 백성에 불인(不仁)하여 사람들의 원망을 일으키면 곧 무너져 스스로 떨어져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맹자가



『삼국사기』 보장왕 ‘사론(史論)’ 부분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

백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자 치고
망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오늘날인들 다들 텨가!
위정자들은 자신의 마음가짐을 되돌아볼 것이며, 깨어있는 국민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

“천시(天時)와 지리(地理)가 인화(人和)만 같지 않다”고 했고, 좌씨(左氏)는 “나라가 흥함은 복으로써 하고 그 망함은 화(禍)로써 하나니, 나라가 흥함에 백성 보기를 상(傷)한 듯이 하니 이는 곧 복이요, 나라가 망함에 백성을 토개(土芥)로 삼으니 이는 곧 화다”라고 했다. 의미있도다. 이 말이여! 『삼국사기』고구려본기10 보장왕

연개소문의 ‘독재’ 정치는 내부 분열의 씨앗이 되었다. 세습체제를 굳혀 가던 연개소문과 아들들은 권력을 사유화하였고, 국정책임자의 자리를 망각하였다. 백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자 치고 망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오늘날인들 다들 텨가! 위정자들은 자신의 마음가짐을 되돌아볼 것이며, 깨어있는 국민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김진한(金鎭漢, Kim Jin-han)

경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연구원을 지냈다. 경북대학교에서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으며, 고대 동아시아 국가 간 교류에 관심을 갖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고구려 후기 대외관계사 연구』(2020)가 있다.

포커스 II

그림으로 만나기

벽화가 전하는 고구려인의 식생활

김근식 전남대학교 역사문화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유라시아 전통과 고구려 고분벽화

박아림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일반대학원 미술사학과 정교수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 속의 이주민 사회: 낮선 이들이 그린 또 하나의 고구려 상(像)

안정준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부교수

벽화가 전하는 고구려인의 식생활

김근식 전남대학교 역사문화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먹을 것에 대한 본능과 먹고자 하는 욕구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쓴다. 물론, 드물게 먹고 마시는 행위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행동 자체를 가치 있고 중요한 일로 여긴다. 오늘날 한국인들에게는 여전히 안부나 인사말에는 ‘밥’이라는 단어가 필수적이며, ‘먹방’이라는 유튜브 콘텐츠를 전 세계에서 처음 제작할 정도로 먹는 것에 진심이다. 그렇다면 1500년 전 이 땅에 살았던 고구려 사람들은 어땠을까? 물론 오늘날에 비하면 먹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부족했기에, 당연히 음식이 주는 의미와 그를 대하는 태도는 우리와 달랐을 수 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먹는 것을 대하는 본질적인 마음은 그대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고구려는 식량 부족으로 음식의 양을 줄여 먹는 절식(節食)이라는 풍속이 있었다고 전하는 만큼, 음식 부족에 빈번히 시달렸다. 이는 고구려 관련 유적에서 쌀보다 조·콩·기장·수수 등 여러 잡곡류의 흔적이 다수 발견되는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이렇듯 주식은 곡류였지만 풍족했다

“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먹을 것에 대한 본능과
먹고자 하는 욕구는 사라지지 않는다. … 식량 사정이 넉넉지 않았던
고구려인들도 허용되는 범위에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을 즐겼다.
그들은 주변국에 술을 잘 빚는다고 소문이 날 정도였으며,
결혼과 같은 특별한 일에는 혼수로 좋은 술과
돼지고기를 보냈다고 알려져 있었다.

”

고 말하긴 어려우며, 부식으로 채소·과일·육류·수산물 등이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마저도 녹록하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식량 사정이 넉넉지 않았던 고구려인들도 허용되는 범위에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을 즐겼다. 그들은 주변국에 술을 잘 빚는다고(善藏釀) 소문이 날 정도였으며, 결혼과 같은 특별한 일에는 혼수로 좋은 술과 돼지고기를 보냈다(男家送猪酒)고 알려져 있었다. 이는 고구려의 집집마다 술을 빚어 보관하거나, 일정량의 육류를 관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밥을 먹을 때에도 반드시 밥상(俎几)을 사용하였으며, 음식마다 사용하는 그릇의 종류가 다르게 전해질 정도로 식사 행위 자체를 진심으로 즐겼던 것이 확인된다.

1. 진심으로 ‘손님맞이’를 하였던 고구려인들

국내성(國內城)에 자리한 고구려 벽화고분인 무용총 현실(玄室) 북벽 벽화에는 ‘손님맞이’ 장면이 잘 드러나 있다(그림 1). 벽화에는 승려로 보이는 짧은 머리카락에 다소 이국적인 복장을 한 손님들(왼쪽)과 전통적인 고구려 복식을 갖춰 입은 무덤 주인(오른쪽)이 마주 보고 앉아 서로 대화를

“
벽화에 구현된 이 완벽한 한상차림은 집을 찾아온 손님을 대하는
고구려인들의 따스한 진심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



그림1 무용총 현실 북벽 벽화: 손님들과 맞이하는 묘주
출처: 池内宏·梅原末治, 1940, 『通溝』下, 日滿文化協會

나누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그 사이에는 무릎을 굽힌 채 한 손에 과도
같은 작은 칼을 들고 무언가 자르려고 준비하는 시자(侍者)의 모습도 보
인다. 주변 탁자에는 차 혹은 술 같은 음료, 떡 또는 과일 등으로 보이는
음식이 도자기 병과 다양한 그릇에 담겨 인물들 앞에 정갈하게 제공되고
있다. 그 아래에는 그것을 옮겨서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고급 칠기
그릇들까지 가지런히 놓여 있다. 벽화에 구현된 이 완벽한 한상차림은 집을
찾아온 손님을 대하는 고구려인들의 따스한 진심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2. 밖에서 먹는 것도 진심이었던 고구려인들

무용총 바로 인근에 자리한 각저총에도 묘주와 그 부인들이 함께 식사를 즐기는 모습이 잘 구현되어 있다. 그런데 벽화를 전체적으로 조망해보면 웬지 모르게 무용총과는 다소 이질적인 느낌이 전해진다. 장막 안에 그려졌기 때문에 마치 집 안에서 식사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 외부에서 식사하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실 입구인 남벽 양면에는 큰 나무들을 그려 묘주와 그의 부인들이 숲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구현하였고, 서벽에는 숲속에 그들이 타고 왔던 말과 마차와 마부들이 그것을 관리하는 장면을 남겼다. 북벽에는 묘주와 그의 부인들이 장막 안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모습을 묘사하였고, 동벽에는 큰 나무 아래를 사이에 두고 간이 부엌과 씨름 장면을 묘사하였다.

그림2에는 부인들과 식사하는 묘주 뒤 위쪽 탁자 위에 활과 화살이 놓여 있고, 그 아래 탁자에는 목을 축일 수 있는 음료가 담긴 주전자가 있다. 그 뒤편 탁자에는 그날 잡은 사냥감을 올려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크기가 제법 크다. 묘주의 앞쪽에는 두 부인이 묘주를 바라보며 앉아 있는데, 그 앞에는 간단한 다과상이 각각 마련되어 있다.

이 장면은 묘주가 부인들과 함께 나들이를 나갔다가 사냥터에서 사냥한 뒤 잠시 쉬면서 간단히 식사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즉, 오늘날로 치자면 가족 동반 캠핑 정도의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야외활동 모습은 동벽 벽화를 보면 더 확실해진다. 여기에는 벽이 없는 간이 부엌에서 묘주와 그의 부인들의 음식을 만들어 나르는 장면과 함께, 큰 나무 아래에서 씨름하며 힘자랑을 하는 두 장사와 심판을 보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그림2 각저총 현실 북벽 벽화: 부인들과 식사하는 묘주

출처: 池内宏·梅原末治, 1940, 『通溝』下, 日滿文化協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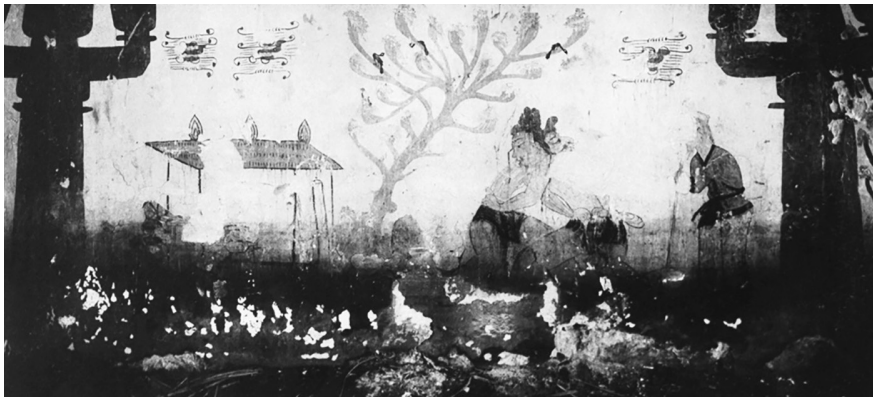


그림3 각저총 현실 동벽 벽화: 간이 부엌과 씨름도

출처: 池内宏·梅原末治, 1940, 『通溝』下, 日滿文化協會

각저총 묘실의 전체적인 벽화 내용을 일기 형식으로 구현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나들이 하기 좋은 어느 날, 나와 부인들이 함께 밖으로 나가 숲 속의 경치 좋은 사냥터를 찾아갔다. 함께 사냥을 즐기다가 배가 고파져서 야외에서 음식을 만들어 맛있게 먹었다. 이내 한쪽에서는 흥을 돋우는 씨름판이 벌어졌고, 그 모습을 구경하며 오랜만에 여유로운 하루를 만끽하였다.” 이는 마치 현대인들이 주말에 경치 좋은 곳으로 낚시를 가서 캠핑하며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이나, 야구나 축구 경기 등의 스포츠를 구경하면서 치킨과 맥주를 먹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3. 먹을 것을 진심으로 대하였던 고구려인들

당연하게도 밖이 아닌 안에서 식사할 때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제대로 된 부엌과 그 외 관련 시설들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다. 고구려 벽화에는 묘주가 머무는 공간과 음식을 준비하는 시설이 철저히 구분되어 있다. 아궁이 위에 밥이 가득한 솥에서 밥을 푸는 장면(약수리벽화고분)이나, 주방 관리자로 보이는 인물이 시녀에게 음식상 차리는 법을 지도하는 장면(통구12호분)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표현된 가마솥 위에 가득 담긴 밥, 상 위에 산처럼 쌓인 음식, 손님이나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는 예나 지금이 딱 다르지 않아 보인다. 1500년 전 고구려 벽화가 우리에게 전하는 식생활은 비록 먹을 것은 부족하지만, 손님과 가족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공동체의식이 어느 정도 녹아있다고 할 수 있다. 무용총과 각저총에 남겨진 벽화를 보고 있다면, 사실상 오늘날의 명절이나 나들이할 때의 모습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당시 고구려인들의 식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벽화는



그림4 무용총 현실 동벽: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는 인물들
출처: 池内宏·梅原末治, 1940, 『通溝』下, 日滿文化協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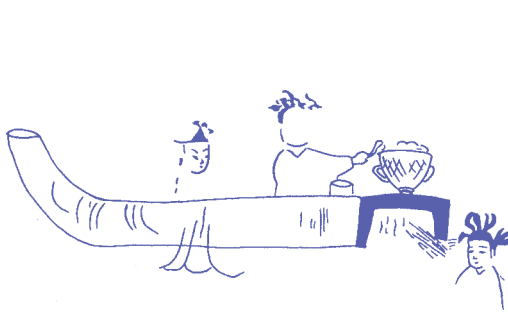


그림5 약수리벽화고분 전실:
동벽 아궁이에서 밥을 푸는 장면(모사도)
출처: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1990, 『조선유적 유물도감』6, 외국문종합출판사



그림6 통구12호분 남분:
음식상 차리기(모사도)
출처: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1990, 『조선유적유물도감』5, 외국문 종합출판사

“

고구려인들의 식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벽화는
음식이 단순한 생존 수단을 넘어, 그들이 겪었던 삶과 그 생활 방식,
사회적 유대 등을 우리에게 전하는 매개체라고도 할 수 있다.

”

음식이 단순한 생존 수단을 넘어, 그들이 겪었던 삶과 그 생활 방식, 사회적 유대 등을 우리에게 전하는 매개체라고도 할 수 있다. 벽화에 묘사된 풍성한 음식과 정성스러운 상차림은 고구려인들이 가족과 손님을 대하는 방식을 반영하였을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고구려인들의 삶과 생활방식에 한층 더 다가설 수 있다. 무용총과 각저총 벽화는 당시 수도였던 국내성에서 발견된 만큼 논란의 여지 없이 고구려인들의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판단된다.

아마 고구려인들도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땐 부엌의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짓거나 국을 끓였고, 분주히 움직이며 고기나 반찬 등 음식을 준비했을 것이다. 음식을 상 위에 얹을 때도 그릇에 넉넉히 쌓아 올려 함께 나눠 먹었을 것이다. 만약 눈앞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앞에 두고 있다면, 벽화 속 사람들과 우리는 같은 기분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김근식(金根植, Kim, Keun-sik)

전남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역사·문화·벽화·문자 등을 키워드로 한국의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벽화고분, 문자문화를 주제로 하는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유라시아 전통과 고구려 고분벽화

박아림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일반대학원 미술사학과 정교수

고구려 고분벽화는 북한과 중국에 걸쳐 분포하는 지정학적 특성, 20세기 초 일본의 발굴 및 모사 작업으로 남은 근대 자료로서의 확장성, 통일 이후 남북 간 협력 속에서 공동 발굴과 연구가 가능한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그리고 3~7세기 동북아시아 건축·회화의 소중한 자료이자 고대 한국에서 유라시아로 열린 문화 통로로서 상징성을 갖고 있어 고구려 벽화가 지닌 역동성을 재조명하는 일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 고구려 미술 연구의 국제적 전개와 유라시아적 시야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독자적 특성과 함께 국제적 보편성을 찾는 시도는, 북한 고고학 발굴을 주도한 도유호 교수(김일성종합대학)의 1959년 논문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도유호는 안악3호분의 무악도(舞樂圖)에 그려진 춤을 추는 인물이 높은 코에 노란(?) 눈동자를 한 페르시아 계통의 서역인이라고 하였다(그림 1). 또한 시리아의 두라 에우로포스(Dura-Europos)의 벽화를 참조하며 고구려 벽화의 기마수렵 모티프를 파르티아(Parthia)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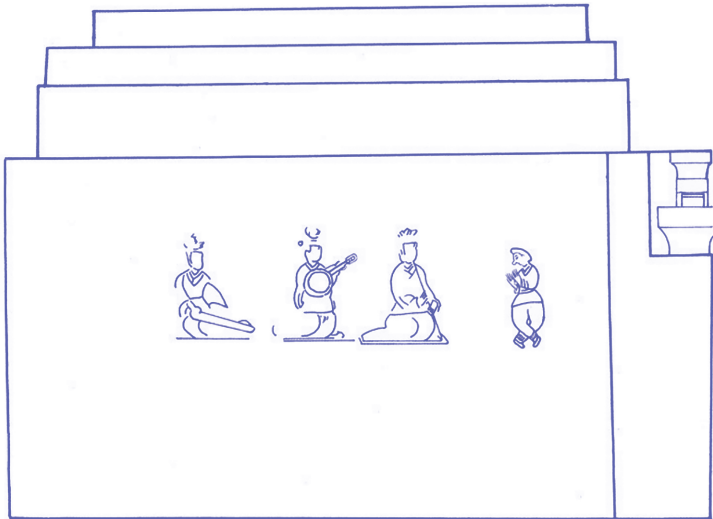


그림1 안악3호분 후실 무악도

출처: 위 사진은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1990, 『조선유적유물도감』 6, 외국문중합출판사, 아래 모사선화는 전호태, 2012,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와 중앙아시아의 교류』, 『한국고대사연구』 68.

“
고대 한국에서 유라시아로 열린 문화 통로로서
상징성을 갖고 있어 고구려 벽화가 지닌 역동성을 재조명하는 일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술과의 연관 속에서 해석하였고, 고구려 특유의 고임식 천장을 파르티아 류 건축의 일례로 보았다. 유입 배경으로는 고구려가 흉노·돌궐 등과의 접촉을 통해 장성 일대에 형성된 문화의 조류를 수용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도유호가 언급한 파르티아 미술을 포함하여 고구려에 문화적 자극을 주어 벽화문화를 배태시켜 발달시킨 외래의 동인을 유라시아라는 폭넓은 문화권에서 살펴본다면, 그리스·로마 미술, 아케메네스조·파르티아·사산조의 페르시아 미술, 쿠샨과 박트리아의 미술, 스키타이·흉노의 미술 등이 포함된다.



그림2 아프리카시아브 벽화(모사박물관도 일부) 출처: 동북아역사넷

“

고구려는 흉노·돌궐 등과의 접촉을 통해 장성 일대에 형성된 문화의 조류를 수용하였다. … 고구려의 대외교류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경로인 스키타이, 흉노, 선비, 유연, 돌궐 등으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초원문화를 주목해야 한다.

”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고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교류를 상징하는 조우관을 쓴 한국인 사신이 그려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아브(Afrasiab) 벽화다(그림 2). 아프라시아브 벽화를 제작한 소그드인(Sogdian)은 중앙아시아 문화를 동아시아에 전파한 매개자로, 이들의 활동은 비잔틴과 사산조, 중국, 돌궐을 잇는 유라시아 문화망 속에 위치한다. 고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교류 경로는 크게 둘로 나뉜다. 첫째, 중국 북조~수당대의 오아시스로를 통한 간접경로로, 이 시기 무덤 출토품(중앙아시아계 장신구·유리기, 사산조 은화, 비잔틴 금화 등)은 동서 문화교류의 물질적 증거다. 둘째, 중국을 거치지 않고 돌궐을 통해 소그드와 고구려가 직접 교류했을 가능성이다.

특히, 고구려의 대외교류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경로인 스키타이, 흉노, 선비, 유연, 돌궐 등으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초원문화를 주목해야 한다. 중국 지린성 지안과 북한 평양을 중심으로 3~7세기 후반까지 축조된 고구려 벽화고분은, 고구려가 벽화고분을 조성하기 이전부터 북방지역을 따라 형성된 북방기류(북방문화)의 영향 아래 형성된 것이다. 스키타이와 흉노는 유목민으로서 주변 문화에 대한 열린 자세로 타 문화를 흡수하였다. 그리스나 한과 같이 주변 문화의 선진기술과 표현 능력을 가진 장인들의 제작을 통해 자신들의 문화 특성을 더욱 세련되게 표

현하는 동시에 주변 문화에 유목민의 생활 환경과 풍토에서 발달한 주제와 애호하는 기법을 전파하였다.

2. 고구려 고분벽화 속 유라시아 문화요소

각저총과 무용총은 유라시아 문화의 특징이 발현된 대표적 벽화고분이다. 각저총의 경우 스키타이·흉노계 도상(圖像)의 영향이 씨름도, 수목도, 마차도의 결합에서 보이고, 무용총의 경우 파르티아·사산조페르시아의 영향이 묘주도, 수렵도, 기마행렬도의 구성에서 나타난다. 각저총과 무용총에 보이는 스키타이, 흉노, 아케메네스조 및 사산조 페르시아의 영향은 중간 매개 역할을 한 유연, 돌궐, 소그드, 에프탈을 통해서 전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잘 알려진 것처럼 무용총 수렵도에 있는 기마 인물의 자세를 파르티안 샷이라고 한다(그림 3). 파르티아는 고대 이란 지역에서 아케메네스조와 사산조 사이에 존속한 유목민이 세운 왕조다. 파르티아의 미술은 아케메네스조 미술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서쪽 로마와 전쟁 및 교류를 통하여 그리스·로마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동쪽으로는 중국 한과 교류를 저 안식국(安息國)이라 불리며 유라시아의 문화요소를 전파하였다.

한편, 몽골 노인 울라(Noin Ula) 등의 지역에서는 파르티아인이 흉노인과 같이 섞여 교류, 거주했음이 알려져 있다. 파르티아 기마 자세는, 파르티아보다 이른 스키타이의 선주민인 킴메르족의 미술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파르티아인이 북방 유목민인 스키타이에게서 받아들인 도상이다.

따라서 무용총 수렵도에 보이는 파르티안 샷의 연원을 살펴보면, 이르게는 스키타이 선주민인 킴메르족에서 시작하여, 스키타이, 흉노에 의해



그림3 무용총 수렵도 출처: 池内宏·梅原末治, 1940, 『通溝』下, 日滿文化協會

북방기류를 통해서 전파된 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도상은 3~4세기 사산조 미술에 중심주제로 등장하면서, 사산조페르시아와 중국 사이의 교류에서 중간지역에 거주하던 에프탈, 유연, 돌궐, 소그드 등을 통해 북방기류를 반영하여 전달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수렵도는 사산조의 지배를 받던 두라 에우로포스의 벽화에도 출현하며, 동시에 사산조의 영향을 받은 그레코-이란(Greco-Iranian) 양식의 소그드 미술에도 보인다.

씨름 장면으로 잘 알려진 각저총의 무덤주인도, 나무와 결합된 씨름도,



그림4 각저총 씨름도

출처: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1990, 『조선유적유물도감』 6, 외국문종합출판사

말과 마차도의 주제 구성은 흉노 계통 허리띠의 청동으로 만든 부조가 보여주는 북방 유목 미술의 서사적 주제 장면 구성과 연계된다(그림4). 유라시아 초원지대 유목민의 구비서사시 전통과 알렉산드로스대왕의 정복 이후 중앙아시아 오아시스 중심지에서 유행한 헬레니즘 전통에서 기원한 것이다. 초원 유목민들의 허리띠장식에서 보이는 서사적 장면은 중국 미술에서는 영향관계를 찾기 어려우나 소그드 유적지의 벽화에서는 그 계승을 볼 수 있다. 씨름이라는 상호 투쟁의 도상 자체도 유라시아 문화권대에서 보면 페르시아와 스키타이·흉노 계통의 동물과 인물 투쟁도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힘을 겨루거나 과시하는 대상이 외국인으로 묘사되는 주제가 가진 상징성은, 무용총보다 후에 조성된 지안 지역 벽화고분에서 역사상(力士像)

포커스 II

과 문지기상으로 역할이 확대되어 출현한다. 고구려 중기 벽화고분에 자주 나오는 행렬도, 백희기악도(百戲伎樂圖), 씨름도에 출현하는 외국인, 하늘을 받치고 있는 역사, 무덤의 출입구를 지키는 문지기 등은 고구려 사회에 유입되어 같이 거주하던 외국인들의 존재를 대변한다.

장천1호분에서는 심목고비(深目高鼻)의 인물이 전실 천장의 삼각 고임석 앞부분에 출현하며 천장을 받들고 있다. 삼실총에서도 제2실과 제3실에서 하나의 역사상이 벽면 전체를 차지할 만큼 크기가 커진다. 삼실총과 장천1호분 역사의 용모는 눈과 코가 크고 수염이 있는 외국인의 용모를 가지고 있다(그림 5). 삼실총 제1실 서벽 우측의 보살형 문지기상은 이란계 양식의 머리 위에 쓴 관장식이 신장(新疆) 키질석굴과 간수(甘肅) 둔



그림5 삼실총 제2실 역사상

출처: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1990, 『조선유적유물도감』 6, 외국문종합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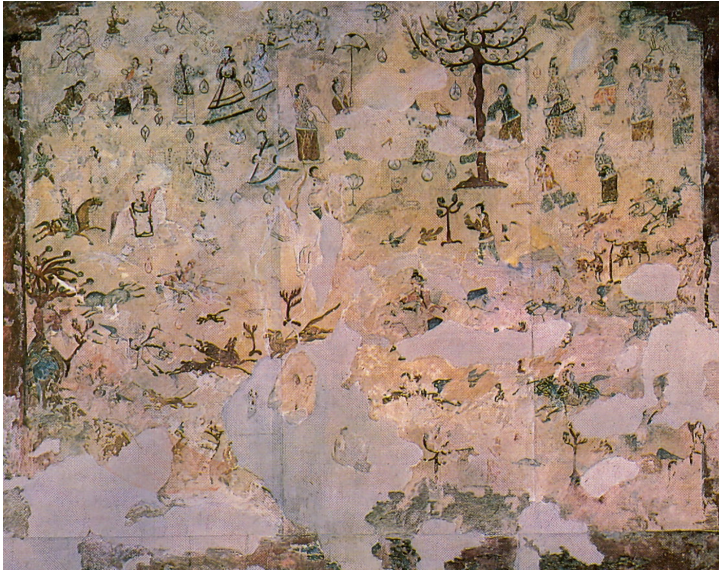


그림6 장천1호분 야외연회도

출처: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1990, 『조선유적유물도감』 6, 외국문종합출판사



그림7 장천1호분 예불도

출처: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1990, 『조선유적유물도감』 6, 외국문종합출판사

“
각저총과 무용총 벽화가 스키타이·흉노계,
그리고 파르티아와 사산조페르시아계의 유라시아 문화가 동전하여
고구려 고유의 문화와 결합하여 만들어낸 벽화 구성이라면,
삼실총과 장천1호분 벽화는 중앙아시아 계통
불교미술과 사산조페르시아계 문화가 결합된 사례로 보인다.
”

황(敦煌)의 북량과 북위 보살상과 유사하다. 이러한 관장식은 사산조페르시아 부조와 은화에 왕권의 상징으로 널리 쓰인 왕관을 차용한 것이다. 장천1호분의 야외연회도에 있는 무덤 주인 그림은 같은 벽면의 기예 장면에서 등장하는 여러 명의 서역인들과 함께 그려져 주목된다(그림 6). 장천1호분의 무덤 주인은 서역계 인물이 출현하는 다양한 곡예와 연주를 감상하고, 페르시아 계통의 각배를 사용하여 연회를 즐기면서, 내세에는 인도 간다라의 초기 불상 양식인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선정인을 한 부처가 주재하는 극락세계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다(그림 7). 각저총과 무용총 벽화가 스키타이·흉노계, 그리고 파르티아와 사산조페르시아계의 유라시아 문화가 동전(東傳)하여 고구려 고유의 문화와 결합하여 만들어낸 벽화 구성이라면, 삼실총과 장천1호분 벽화는 중앙아시아 계통 불교미술과 사산조페르시아계 문화가 결합된 사례로 보인다.

3. 유라시아 예술 네트워크 속 고구려 고분벽화

고구려 초·중기와 같은 시기인 사산조페르시아의 미술은 소그드 지역의 미술에 큰 영향을 미쳐, 소그드 미술이 그리스·로마와 페르시아 미술을 결합한 그레코-이란 양식의 특징을 갖는 데 기여하였다. 사산조 미술

의 주제와 구성의 특징은, 소그드 미술만이 아니라 유목민족(유연, 돌궐, 에프탈)의 미술에도 영향을 미쳤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주된 주제인 연회도, 수렵도 등은 사산조 미술의 중심주제면서 중국 북조의 소그드계 미술의 주제다. 이는 당시 교역을 주도한 유연, 돌궐, 소그드의 활동과 중국 내 소그드인 거주지의 발달 등을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소그드는 4세기 에프탈에 의한 쿠샨의 멸망 이후 5~6세기 사산조, 에프탈, 돌궐의 교차 지배를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이들의 도움으로 교역 상인 집단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소그드계 미술의 주제와 표현 방법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이 사산조페르시아 미술이며, 사산조 미술은 아케메네스조와 그리스·로마 및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다. 이미 그리스·로마와 페르시아 미술의 영향이 북방 문화권대의 스키타이·흉노의 미술에 드러난다는 점은 무용총 벽화 구성의 연원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유라시아 문화적 요소란, 스키타이·흉노에 의해 만들어진 동물양식 장식의 다양한 결합과 표현, 헬레니즘과 그레코-이란 계통의 모직물과 비단 장식과 같은 스키타이·흉노의 미술문화, 그리고 이들에 의해 개통된 북방기류 문화권대를 통하여 오고 간 유라시아 문화를 포함한다. 흉노가 한과의 접촉에 의해 북방지역에 만든 호한(胡漢)문화, 그리고 스키타이, 흉노, 유연, 에프탈, 돌궐 유목민에 의해 지속적으로 흘러 오고 간 북방지역의 문화, 끊임없이 중국으로 유입된 소그드인을 포함한 호상(胡商)과 그들의 주거지를 통해 전파된 서방 문화도 반영되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시아브 벽화는 소그드의 독자적 문화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돌궐 및 중국 거주 소그드인과의 상호 교류를 종합적으로 반

“

아프라시아브 벽화는 소그드의 독자적 문화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돌궐 및 중국 거주 소그드인과의 상호 교류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유적이다.

”

영한 유적이다. 아프라시아브 벽화 연구는 몽골과 중국에 남아있는 돌궐 미술과의 상관성을 고려할 때, 동서 미술 교류의 쌍방향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고구려 고분벽화를 유라시아 미술의 흐름 속에 재배치하여 유라시아 미술의 맥락에서 고찰하는 연구는 단순한 지역사적 접근을 넘어, 동서 문화교류의 시각예술적 축적을 복원하고 그 역사적 위상을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박아림(朴雅林, Park, Ah-rim)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일반대학원 미술사학과 정교수
고구려와 중국 고분미술과 몽골과 중앙아시아 고고미술에 이어
서 동방 기독교 미술 및 한국의 교회 미술을 연구하고 있다. 하
버드대학교와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방문학자 및 동양미술사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한국미술사학회와 동양미술사학회 감사로
있다. 저서로는 『중국 한당 벽화』, 『유라시아 초원 문화의 정수 몽
골 미술』, 『고구려 고분벽화 유라시아문화를 품다』 등이 있다.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 속의 이주민 사회

날선 이들이 그린 또 하나의 고구려 상(像)

안정준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부교수

국립중앙박물관 1층 선사·고대관에는 고구려 실감 영상관이 있다. 사방에 프로젝터 영상을 투사해 실제 무덤 안에 들어간 듯한 느낌을 주는 공간이다. 이곳에는 3기의 고분벽화가 재현되어 있는데, 그중 안악3호분과 덕흥리벽화고분은 화려한 복식과 생생한 생활 장면으로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하지만 이 무덤의 주인공들이 원래 고구려인이 아닌 외국에서 온 망명인이고, 벽화 속 인물들의 복장과 각종 물건들이 고구려 외부의 문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1. 고구려로 흘러든 중국계 이주민과 새로운 무덤양식

본래 무덤 안에 돌방을 만들고 그 벽면에 그림을 그리는 장례전통은 중국 전한(前漢) 시대 이래로 중원 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하였다. 그러나 3~4세기에 이르러 중국 중심부가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워지자, 많은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중국 동북방(요양)과 북방(내몽골), 하서(감숙) 등

“
4세기 중반부터 약 백여 년 동안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에는 고구려의 전통과는 다른,
중국의 요동이나 화북 동북부의
장례전통을 따른 무덤이 다수 만들어졌다.
”

지로 이동하였다. 이어 4세기 초 서진(西晉) 왕조가 붕괴하면서 화북 일대가 또다시 장기간의 혼란 상태에 빠지자, 육로와 해로를 따라 이동하던 수많은 이주민들이 결국 고구려 영토까지 흘러들어오게 되었다. 그들은 먼 타국으로 떠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장례전통을 지키고자 했고, 이는 고구려에 석실봉토벽화분(石室封土壁畫墳)이라는 새로운 무덤 양식이 소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주민 다수는 고구려의 허용 아래 지금의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에 정착하였다. 이후 4세기 중반부터 약 백여 년 동안 이 지역에는 고구려의 전통과는 다른 형태의 무덤이 지속적으로 조영되었다. 즉, 요동 지역이나 화북 동북부의 장례전통을 계승한 무덤이 다수 만들어진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원형과 벽화가 잘 보존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황해남도 안악군의 안악3호분과 평안남도 강서구역의 덕흥리벽화고분이다.

본래 고구려의 지배층은 산이나 강가에서 구한 자갈을 쌓아 만든 적석총(積石冢)을 선호했다. 그러나 이주민이 들여온 석실봉토벽화분은 그 건설과 유지·보수에 비교적 적은 인력이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었다. 특히 내부에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벽면에 화려한 벽화를 그릴 수 있었다. 이 독특하고 화려한 무덤은 곧 고구려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주민을 통해 축조기술과 벽화 제작기법이 전해졌고, 5세기



안악3호분 동쪽 회랑 동벽의 대행렬도

출처: 고구려연구재단, 2005, 『(증보판) 평양 일대 고구려 유적』



덕흥리벽화고분의 내부 모습

출처: 동북아역사넷(contents.nahf.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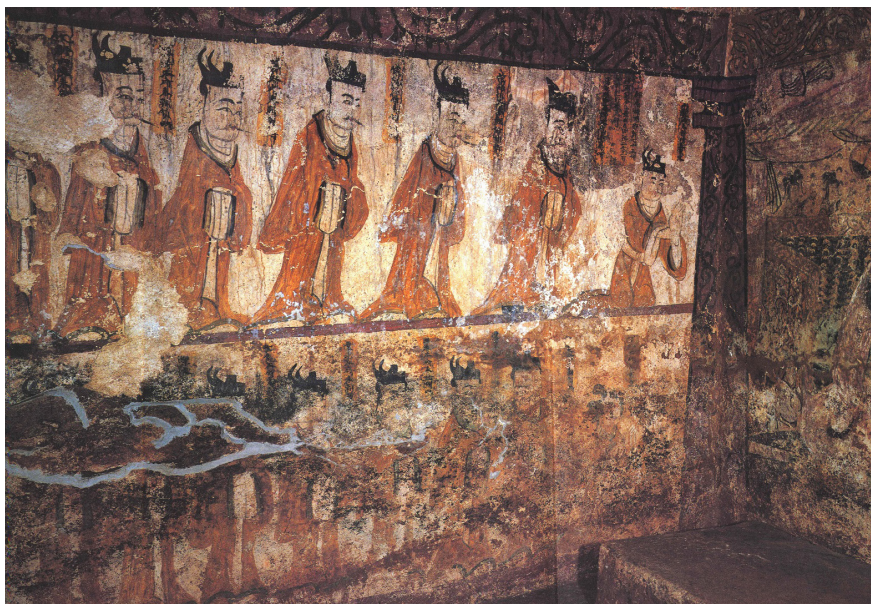
전반 이후에는 고구려 지배층도 이를 받아들여 자신들의 장례문화로 삼았다. 결국 고구려에서 벽화무덤이 유행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 동북방과의 활발한 교류와 이주민 유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고구려가 외부 이주민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를 수용한 데는 주변 정세도 영향을 미쳤다. 압록강 중류지역에서 시작한 고구려는 3세기까지 북방 부여와 중국의 군현(현도군·낙랑군 등)에 둘러싸여 주변으로의 확장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4세기 초 서진 왕조가 붕괴되면서 동북지역에 대한 제어력이 사라지자, 고구려는 점차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광개토태왕대인 400년경에는 요동 지역을 완전히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당시 중국 동북부의 요서에서 요동, 그리고 고구려로 이어지는 지역에는 여러 국가가 공존하며 서로 군사적·정책적으로 대립하고 있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정세가 변할 때마다 더 안정적이고 좋은 조건의 국가·지역으로 이동하곤 했다. 고구려 역시 주변국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외부 주민들을 끌어들이었는데, 이를 통해 중국 왕조의 한자문화와 행정체계, 그리고 다양한 외래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한족(漢族) 농민들을 정착시켜서 토지를 개간하게 하기도 했다. 고구려는 여러 이점을 가진 이주민들을 장기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그들이 영토로 들어온 이후에도 일정 기간 집단을 이루어 거주하거나, 자신들의 사회적 전통을 유지하는 것을 용인하기도 했다.

2. 고구려에 남은 이주민들의 기억

안악3호분과 덕흥리벽화고분의 벽화를 보면, 그 상당 부분이 중국의 제도와 전통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묘주의 신분과 권위를 드



덕흥리벽화고분 전실 서벽 13군태수내조도

출처: 朝鮮畫報出版部 編, 1985, 『高句麗古墳壁畫』, 朝鮮畫報社

러내는 관복과 물건은 대부분 고구려와 무관한 중국 전통의 것들이며, 주위에서 묘주를 모시는 관리들도 중국식 복장을 착용하고 있다. 벽면에 먹으로 쓴 글을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는데, 이들은 고구려로 망명한 뒤에도 태수(太守)나 자사(刺史) 등 중국 왕조의 관직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주민 집단의 대표를 자처한 흔적도 보인다. 즉 고구려 땅에 들어온 뒤에도 자신들의 고향에서 지켜온 사회·문화 전통을 상당히 유지하면서 살아간 것이다.

고구려는 자국 영토로 들어온 이주민들을 충분히 통제할 능력이 있었다. 그렇다면 왜 그들에게 고향의 장례전통에 따라 무덤을 만들고, 더

“
외래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옛 터전을
재현해 살 수 있었던 것은 고구려 정권의 배려 덕분이었다.
이러한 매력적인 조건은 이후 더 많은 이주민을
고구려로 끌어들이기에 충분했다.
”

나아가 이주민 중심의 집단을 이루며, 자신들이 익숙한 제도나 관직 이름을 그대로 쓰며 살도록 허용했을까? 이것은 고구려가 주변국과의 경쟁 속에서 인적 자원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판단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출신 망명인들이 만든 무덤벽화 속에는 중국의 제도와 전통이 반영된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중에는 이미 중국 안에서는 행정적으로 사라진 오래된 지명이나 관직이름이 보이기도 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현실과는 관계없는 묘주의 상상이나 판타지로 보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구려로 이주한 사람들이 무덤을 꾸미는 과정에서 새로 바뀐 명칭보다는 자신들의 기억 속에 익숙했던 옛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흔적으로 보인다. 즉, 무덤 속의 벽화나 글은 그들의 보수적인 정서와 기억, 고향에 대한 강한 향수를 반영한 결과인 것이다. 이주민들이 타국에서도 자신들의 옛 터전을 재현해 살 수 있었던 것은 고구려 정권의 배려 덕분이었다. 이러한 매력적인 조건은 더 많은 이주민을 고구려로 끌어들이기에 충분했다.

3. 벽화를 통해 드러난 이주민의 삶과 지향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벽화와 글이 단순히 죽은 자를 위해서 만든 것



덕흥리벽화고분 전실 남벽 입구 우측의 막부관리도

출처: 고구려연구재단, 2005, 『(증보판) 평양 일대 고구려 유적』

이 아니라는 점이다. 무덤 안에 그려진 벽화들을 살펴보면, 여러 장면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서로 이어져 있다. 마치 무덤 안을 걸어다니는 사람의 시선에 맞춰 순서대로 배열된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벽화 사이사이에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먹으로 짧은 해설문을 적어 두기도 했다.

이런 벽화와 글이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일까? 그렇게 보기에는 이미 묘주가 생전에 잘 알고 있었을 내용까지 너무 자세히 표현된 점이 이상

“
고구려에 정착한 뒤에도 한동안 이어진
이주민 특유의 정서·지향이 짙게 드러나는 자료들은
한반도 서북부에 정착하여 살아갔던 그들 사회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창이 되기도 한다.
”

하다. 벽화의 순서와 설명문이 세심하게 짜인 것은 무덤 안을 둘러볼 살아있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즉 무덤이 완성된 뒤 일정 기간 동안 외부 사람들에게 무덤 내부가 공개되었고, 일종의 ‘전시 공간’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묘주 가족이 무덤을 공개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관람객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 고분 속의 벽화와 묵서를 통해 보여지는 묘주의 생전 모습과 활동상은 단순히 묘주의 개인적 지향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 벽화와 글에는 묘주 일가와 주변에 함께 거주했던 이주민들이 공유했던 정서·이념·신앙과 같은 사회적 가치가 담겨 있다.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지에 흘러든 같은 처지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는 점차 잊혀져 가는 자신들 본래의 전통과 가치관·신앙 등을 내세워서 서로 간의 사회적 결속을 확인·강화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고구려에 정착한 뒤에도 한동안 이어진 이주민 사회 특유의 정서·지향이 짙게 드러나는 자료들은 4~5세기에 한반도 서북부에 정착하여 살아갔던 이주민 집단의 사회 내부를 들여다보는 창이 되기도 한다.

요컨대 고구려의 벽화무덤은 단순히 죽은 이를 위해서 만든 화려한 조영물 정도로 치부할 수 없다. 특히 외래 이주민의 전통이 반영된 무덤 내

포커스 II

부는 서로 다른 전통이 만나고 낯선 사람들이 공존했던 다문화사회의 흔적을 그대로 품고 있다. 고대 동아시아에서의 대규모 이주와 그 여파, 그리고 이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든 고구려의 포용력은 오늘날에도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이주해온 사람들과 새로운 문화를 주위에서 종종 접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안정준(安正竣, An, Jeong-jun)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부교수

연세대학교 사학과에서 한국고대사를 전공했으며, 「高句麗의 樂浪·帶方郡 故地 지배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아시아라는 역사·지리 공간을 배경으로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의 고대사를 연구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대표 저서로 『고대 동아시아의 이주와 고구려』(역사비평사)가 있다.

부여의 땅 위에 선 고구려, 나통산성을 가다

배현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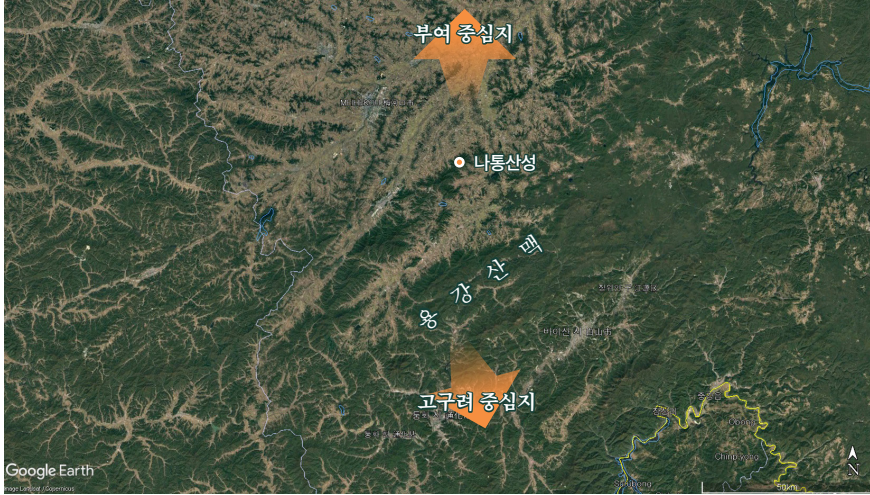
1. 고구려와 부여, 그리고 나통산성

중국 지린성(吉林省) 류허현(柳河縣)에는 용강산맥(龍崗山脈)에서 북쪽으로 뻗어나온 가지 산맥(支脈) 자락에 해발 960m의 험준한 나통산(羅通山)이 위치한다. 이 산 정상부에는 회색 석회암을 장방형으로 다듬어 쌓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산성이 있다. 고구려가 4세기경에 축조했다고 하는 나통산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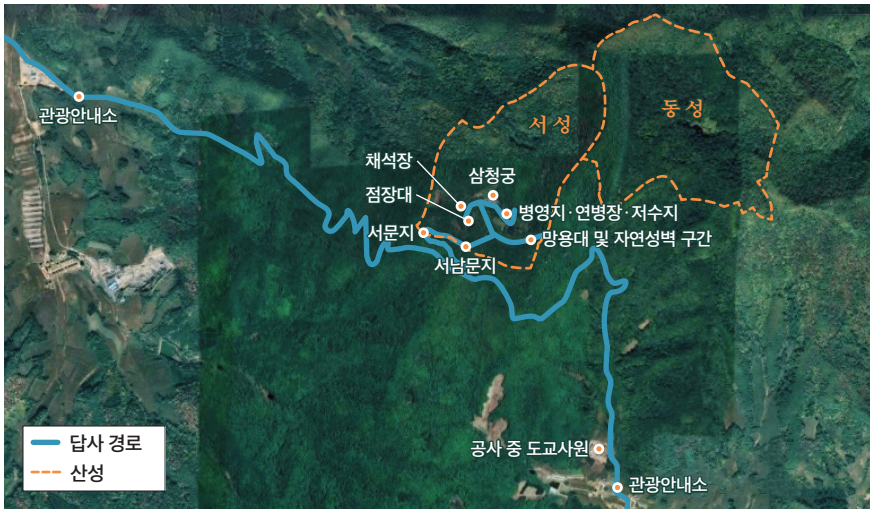
산성의 형태는 다소 특이한데, 동서의 두 성이 한쪽 면을 맞대어 붙어 있는 구조다. 전체 성벽 길이는 약 7.5km에 이르러 지린성에서 제일 큰 규모의 산성이라고 한다. 이 지역은 북방에서 고구려의 중심지 지안으로 내려오거나 반대로 고구려에서 북상하여 부여의 중심인 지린시에 이를 수 있는 길목에 해당하는데, 나통산성에서는 그 주변을 모두 조망할 수 있다. 나통산성은 당시 고구려가 이 일대를 관리하고 주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쌓은 군사 요새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통산성이 위치한 곳은 본래 부여의 땅이었다. 고구려 초기,

체험! 역사현장



나통산성의 위치



나통산성 평면

“
고구려의 확장정책과 부여, 모용선비와의 역학관계 등이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는 가운데, 부여 중심지로 연결되는 길목에
나통산성이 축조된 것이다.
”

늦어도 기원전 2세기에 성립한 부여는 지린성 일대를 제패한 강대한 국가였다. 『삼국사기』에는 부여가 고구려를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 이후 1세기 대무신왕 시기부터 고구려도 부여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다고 하는데, 북쪽의 부여와 남쪽의 고구려는 용강산맥을 경계로 대치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나통산성은 이 용강산맥의 북편, 즉 부여의 남쪽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다.

어떤 연유로 부여의 땅에 고구려 산성이 축조될 수 있었을까? 강대했던 부여는 285년 모용선비(慕容鮮卑)의 공격을 받아 왕성(王城)이 함락되는 등 겨우 명맥만 유지하게 된다. 당시 요동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던 모용선비는 부여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었다. 고구려는 서쪽으로 모용선비, 북쪽으로 부여, 남쪽으로 낙랑군 및 대방군과 대치하고 있는 형세였다.

3세기 말부터 왕권이 강화된 고구려는 미천왕이 즉위한 300년, 즉 4세기대부터 적극적인 확장정책을 펼쳤다. 한반도 서북부의 낙랑군과 대방군을 축출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요동 지역으로의 확장은 모용선비에 의해 번번이 막히고 있었다. 부여가 모용선비의 손에 들어간다면 고구려는 서쪽과 북쪽에서 모두 모용선비와 대치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니 고구려는 부여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모용선비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수밖에 없었고, 4세기 전반에는 부여의 남쪽 영역을 탈환하는 데 성공한 것으

로 보인다.

고구려의 확장정책과 부여, 모용선비와의 역학관계 등이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는 가운데, 부여 중심지로 연결되는 길목에 나통산성이 축조된 것이다. 고구려는 4세기대 나통산성을 비롯하여 요동평원에서 지린까지의 중간지대에 여러 산성을 축조하여 군사방어력을 강화하였는데, 이는 이후 광개토왕이 부여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2. 나통산성의 조사와 정비

나통산성은 1980년대 지린성문물공작대에서 산성에 대한 실측과 간단한 시굴조사를 실시한 이래, 1990년 초에는 무분별한 내부 개발 및 도교 사원 건설 등이 이루어져 고통을 겪었다. 이후 2001년 제5차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한국의 '사적지'와 유사)로 선정되었지만, 이렇다 할 조사 및 보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 2004년 지안의 고구려 유적이 세계문화



나통산성(2017)

“
나통산성은 중국 국가문물국에서 시행하는
대유적 보호 대상에 선정되어 보존 정비가 이루어지고,
2015년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되었다.
”

유산으로 등재된 것과 맞물려, 고구려 유적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나통산성이 다시금 주목받게 된다. 지린성고고연구소는 2006년 나통산성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을 위한 사전조사를 거쳐 2007~2012년 나통산성 일대에 대한 정식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이 발굴 성과는 2024년 정식 고고학 보고서로 출판되었다.

한편, 중국 국가문물국에서 시행하는 대유적 보호 대상에 선정되어 보존 정비가 이루어지고, 2015년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되었다. 중국은 5년 단위로 보호계획을 수립하는데,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 중 2014~2015),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에 선정되어 현재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의 사진을 참고하면, 내부 탐방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고구려 깃발 등도 게시되어 있어 잘 관리하는 유적지 느낌을 물씬 풍긴다.

3. 나통산성의 현재

그러나 필자가 이번에 방문했을 때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통화(通化)와 랴오위안(遼源)을 연결하는 G303 고속도로를 나와 논밭으로 이루어진 평야지대의 셋길을 따라 가다 보면 한글과 한자로 쓰인 나통산관광지(羅通山旅游風景區) 표지판이 나온다. 이를 끼고 나통산 방향으로 진

체험! 역사현장



나통산 관광지 팻말



나통산 입구 패루



패루 벽면의 안내판



나통산성 표지석

“
패루 앞의 플라스틱 간이의자는 파손된 상태였고,
벽면의 황금색 안내판도 오랜 세월 방치된 것처럼 녹슬고 균열이
가 있어 안내문구를 가까이서 유심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판독하기도 어려웠다.

”

입하면 곧 산자락이 시작되는 곳에서 공사를 멈춘 관광안내소가 나온다. 여기에서 다시 정비된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나통산의 입구를 알리는 중국 전통건물 양식의 패루(牌樓)를 만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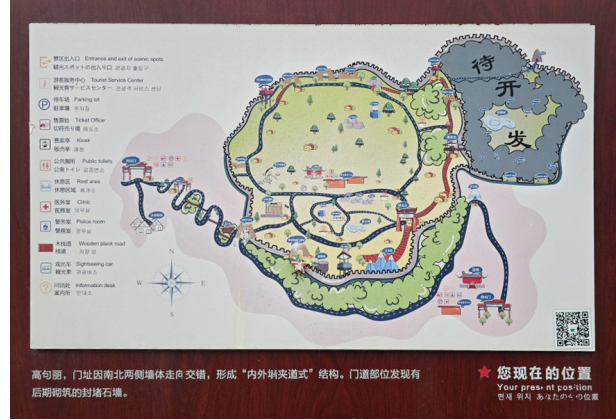
날씨 때문이었을까, 봄나들이 하기 좋은 4월이었지만, 다소 흐린 날씨 탓에 적막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패루 앞의 플라스틱 간이의자는 파손된 상태였고, 벽면의 황금색 안내판도 오랜 세월 방치된 것처럼 녹슬고 균열이 가 있어 안내문구를 가까이서 유심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판독하기도 어려웠다. 안내판을 유심히 본 뒤에야 이곳이 AAA급 관광지로 지정된 나통산성 유적공원임을 알 수 있었다.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자물쇠로 굳게 봉인된 대형 화장실은 마치 폐허처럼 느껴졌다. 2018년에 세운 돌 표지석만이 이곳이 ‘나통산성’임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었다.

패루를 지나 구불거리는 산길을 따라 한참을 가다 보면, 드디어 나통산성의 성벽에 도달한다. 당시 주성(主城)으로 사용한 서성(西城)의 서쪽 문터(西門址)였다. 서문지는 이미 복원이 완료된 상태였는데, 1981년과 2001년에 건립된 표지석이 나란히 위치하고 있었다. 서문지의 안내판에는 나통산성의 전체 구조와 주요 관광지점을 알려주는 빛바랜 안내도가 있어 나통산성의 대략적인 구조를 알 수 있었다. 안내도에는 관광객 서비스센터, 주차장, 매표소, 매점, 내부 관광버스 탑승지 등이 표시되어 있지

체험! 역사현장



서문지



나통산성 안내도



복원된 성벽



도교사원(삼청궁)

체험! 역사현장



연병장



나통산성 발굴 성과 안내판



나통산 남쪽 입구(왼쪽)와 공사를 멈춘 도교사원(오른쪽)



“
과거 웅장했던 고구려의 북부 방어를
담당하며 험준한 산꼭대기를 능름하게 지키고 있던
나통산성이 사람들의 발길로 다시 한 번
활기가 넘치기를 기대한다.
”

만, 아직 운영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또한 동성(東城)은 아직 개발되지 않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서성은 서문지, 서남문지, 점장대, 채석장, 병영지, 연병장, 저수지, 우물 등의 산성 관련 유적과 도교사원(三清宮)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 나통산성 유적관리소, 고고공작참(考古工作站) 등의 시설이 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정비가 되어 있었지만, 예전 사진 속처럼 깃발이 펄럭이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안내판은 빛이 바래고 페인트가 벗겨져 다소 황량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나통산성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필자를 제외한 다른 관람객의 모습은 볼 수 없었기에 더욱 그렇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다.

한편, 나통산 남쪽에도 나통산성 관광지의 또 다른 입구가 조성되어 있다. 처음 진입했던 서쪽 입구와 달리 패루, 관광안내소, 주차장이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인기척을 느낄 수 없었다. 흐린 날씨 탓인지 웬지 모를 아쉬움을 느끼며 나통산성을 뒤로 하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이번에 찾은 나통산성은 2015년에 일반인에게 공개되었고, 이곳을 방문한 한국인의 사진촬영을 관리인이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현재의 나통산성은 전체적인 정비가 완료되지 않고 관리는 어느 순간 멈춘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필자

체험! 역사현장

가 잠시 관리 공백기에 우연히 방문한 것일 수도 있다. 과거 웅장했던 고구려의 북부 방어를 담당하며 험준한 산꼭대기를 늠름하게 지키고 있던 나동산성이 사람들의 발길로 다시 한 번 활기가 넘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余昊奎, 2000, 「4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와 고구려대외정책의 변화-對前燕關係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36.
- 李鐘洙, 2005, 「고구려의 부여진출과정연구-군사적 충돌을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21.
-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편, 2022, 『고구려 초기 국가체제와 대외관계』, 동북아역사재단



배현준(裴炫俊, Bae Hyun-joon)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중국 베이징대학 고고문박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동북아시아 고고학을 연구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박물관 연구교수를 역임하였다. 논저로는 『동북아시아 고고학개설 1-선·원사시대 편』(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20), 『세형동검문화기 요양지역 소위 '연' 무덤의 출현과 그 배경』(『학림』 53, 2024), 『한반도 서북부 초기철기문화 출현 과정의 一面』(『한국고대사탐구』 44, 2023) 등이 있다.

중국 ‘승전 80주년’ 열병식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

김상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한양대학교 전략정보학과 겸임교수

1. 오늘의 무대 위로 소환한 전쟁의 기억

2025년 9월 3일, 베이징의 톈안먼 광장과 장안가(長安街) 일대는 붉은 깃발과 군악대의 리듬으로 물들었다. 하늘에는 스텔스 전투기가 비행하며 ‘V’자를 그렸고, 헬기는 ‘80’이라는 상징적 숫자를 하늘에 구현해냈다. 땅에서는 인민해방군 정예 병력이 분 단위의 정밀 행진을 펼쳤다. 중국은 이날을 ‘항일전쟁·세계반파시즘전쟁 승리 80주년’이라 명명하며, 국가적 기념식을 넘어선 거대한 정치·외교의 무대를 연출했다.

중국은 1931년 만주사변 이후 14년간 이어진 항일전쟁과 제2차 세계 대전의 아시아 전선에서 약 3,500만 명의 희생을 기록했다고 강조하며, 이를 국가 정통성과 민족 부흥의 핵심 축으로 삼아 왔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열병식이 단순히 전쟁의 상흔과 역사적 고통을 기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더군다나 열병식에서 중국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중국의 힘을 정치적 자산으로 환원하는 의식이자, 자신들의 권력 언어로 전 세계에 국제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한 ‘고도의 정치 행위’였다고 평

“
열병식에서 중국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중국의 힘을 정치적 자산으로 환원하는 의식이자, 자신들의 권력 언어로
전 세계에 국제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한 ‘고도의 정치 행위’였다.
”

가할 만하다.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하다. 그 어느 때보다 압도적인 규모와 내용으로 점철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사상 최대 규모인 약 4만 명의 병력과 수백 대의 지상 장비, 전투기, 그리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평-61’ 등 최신 무기 체계를 선보였다. 이 광경이 단순한 회고가 아닌, 현재 중국의 힘을 증명하는 정치적 쇼케이스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열병식은 전통적인 군사 퍼레이드 형식을 빌렸지만, 그 본질은 국제무대에서 중국이 주도하고자 하는 ‘담론전(戰)’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전쟁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희생을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수립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중국은 희생을 통해 얻은 도덕적 자산을 오늘의 전략적 자원으로 명민하게 활용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에 있어 과거는 현재를 움직이는 동력이며, 미래를 설계하는 사고의 원천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2. 기술과 산업이 좌우하는 전쟁과 평화의 경계

중국이 열병식에서 보여준 무기는 군사력이 아닌 기술적 자립과 산업 경제 역량의 총합이었다. ICBM으로 추정되는 신형 장비, 20미터급 초대형 무인 잠수정, 전자전·레이저 방어체계가 잇따라 등장했고, 행진 대형



해상 무인기 전력 사열 장면

에는 정보지원부대, 우주·사이버작전부대가 함께 포진했다. 탱크와 전투기 등 재래식 무기 퍼레이드를 넘어서 정보·우주·사이버 공간을 아우르는 ‘다영역전(Multi-domain Operations)’ 시스템의 향연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열병식을 “미국의 해양·공중우세 체계에 대한 대안적 전략 시연”으로 평가한다. 접근 거부/지역 거부(A2/AD) 전략의 완성형을 시각적으로 최적화했다는 것이다. 미국과의 전면 충돌을 피하면서도 주변국 관계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례에서 보았듯이 현대전은 단순한 화력의 경쟁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다. 지속 가능한 물자 공급, 정찰과 타격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정보 네트워크,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사결정 속도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중국은 이러한 ‘연속전(延續戰)의 시대’에 맞춰 운용할 장거리 타격 무기와 무인·정보전 체계를 전면에 내

“
중국이 시현한 전쟁의 도구들은 군사력 과시를 넘어선
산업 혁신의 방증이자 첨단기술의 결정판이었다.
”

세웠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장거리 타격 무기의 궤적 뒤에는 반도체 공정이, 대규모 드론 편대 뒤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이버전 대응 능력 뒤에는 고신뢰 국가네트워크(High-trust State Network)가 존재한다.

결국 중국이 시현한 전쟁의 도구들은 군사력 과시를 넘어선 산업 혁신의 방증이자 첨단기술의 결정판이었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 AI 칩, 첨단 기술기업을 통제하고, 중국이 희토류, 배터리 소재, 공급망 기술로 대응하는 현실을 열병식이라는 방식을 통해 영리하게 연출한 것이었다. 이는 미중 간의 갈등이 ‘기술패권 경쟁’의 극한 상황 속에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중국이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에 보여준 무언의 아우성과 선언이었다.

3. 북중러 연대와 한미일의 관계 제도화

이번 행사에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장면 중 하나는, 시진핑 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다. 세 지도자가 함께 서 있는 장면은 ‘연대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중국은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질서 구상에 핵심 파트너를 배치했다.

체험! 역사현장



2015년 전승 70주년 기념식에서 박근혜, 블라디미르 푸틴, 시진핑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
© 베이징/AFP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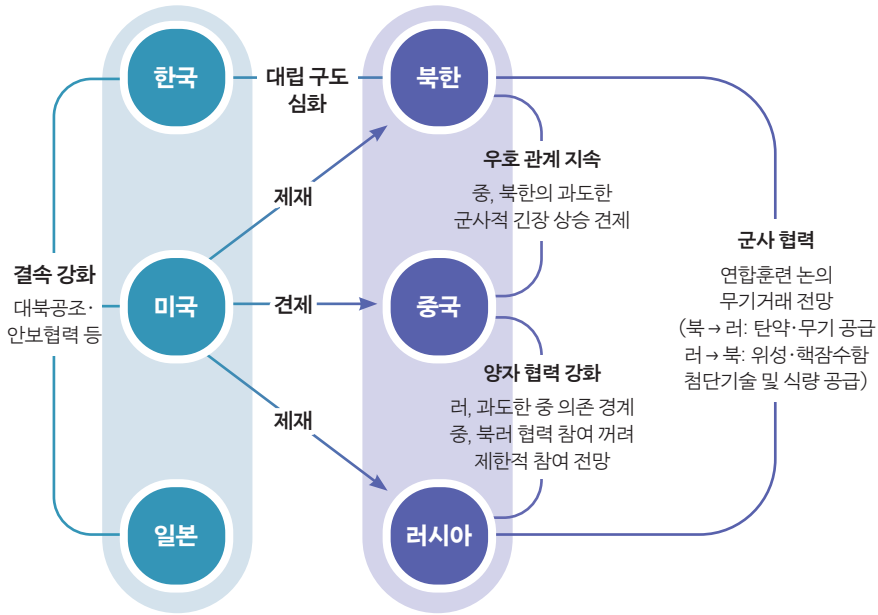
출처: 『한겨레』, 2015. 9. 4.(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07531.html)



2025년 전승 80주년 열병식에서 시진핑, 블라디미르 푸틴, 김정은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
© 베이징/신화 연합뉴스

출처: 『한겨레』, 2025. 9. 3.(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216648.html)

체험! 역사현장



한미일-북중러 동북아 '신냉전' 구도 현황

10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텨안면 망루에 올라 시진핑 옆에 섰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때의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던 시기였고,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원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은 없었고 북한이 자리했다. 국제정치의 관계 지형은 변했고, 중간지대의 여유는 사라졌다.

한미일 3국은 동북아에서 북중러와 정반대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미사일 경보공유체계,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단어들이 세 나라의 공통 언어가 되었다. 한미일이 연합훈련을 확대하고 이에 대응해 북중러 역시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태평양을 경계로 사실상 신냉전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

적 모호성'은 설 자리를 잃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이중구조는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 북중러의 연대가 구조화하고 한미일의 결속이 제도화하면서 한반도는 두 질서가 맞닿는 경계선이 되었다. 이번 열병식은 그 현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4. 국제질서의 격변 속, 한국은 어떻게 '혼문'을 만들 수 있을까

세계는 불확실성에 매몰되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중동의 화약고는 다시 불붙었으며, 인도-태평양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핵 무력을 헌법에 명시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합의 구조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한을 '일종의 핵무기 보유국가'로 언급하며, 비핵화보다는 동결 중심의 현실론으로 선회하는 스탠스를 취했다.

2025년 9월 3일 베이징 텐안면에서 우리가, 전 세계가 함께 목도한 것은 과거의 승리를 기념하는 의식이 아니라, 미래 질서를 향한 전략적 선언이었다. 더불어 새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자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이 선택의 강요로 이어질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자리였다. 이제 남은 것은 한국이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한국은 지금 냉전과 탈냉전, 동맹과 중립,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역사적 분기점에서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복잡한 관계구조를 어느 한쪽의 시각만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기 어렵다. 한미동맹은 안보의 버팀목이지만 중국과의 관계 역시 경제와 공급망의 생명선이다.

한국의 외교는 대결이 아니라 연결, 단절이 아니라 소통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을 지키면서도 중국과의 경제·문화적 협력을 병행

“

우리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냉철한 전략을 수립해야만
진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

하는 이중 대화 구조가 절실하다. 이는 타협이 아니라 공존을 위한 선택이다. 한쪽에 서는 순간 다른 쪽과 파국으로 치닫는 구조를 피하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만나서 보고, 듣고, 이야기해야 한다. 물론 그 대상과 의제의 제한은 없어야 한다. 대화의 문을 닫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외교공간을 잃어버리게 된다. 상호 간의 불신과 오해를 최소화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외교가 대화를 통해 다리를 놓는 일이라면, 산업과 기술은 그 다리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전략기술은 이미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자주권을 잃는다면, 어떤 동맹이나 국가 관계도 유지할 힘을 가질 수 없다.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지키려면 무기를 늘리는 대신 기술과 산업의 자립 기반을 키워야 한다. 반도체, AI, 배터리 같은 핵심 분야에서 한국이 단순한 공급처가 아니라 기술표준을 함께 만드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자기 기술로 설 수 있을 때만, 우리는 어느 진영에도 휘둘리지 않는 자율적 균형을 지킬 수 있다. 한국이 주도권을 쥐 기회가 생긴다면 외교의 선택지도 함께 넓어질 수 있다.

기존 국제정치 질서의 문법이 파괴되고 ‘규범의 시대’가 무너진 지금, 한국이 평화를 지키는 방식은 강대국 사이의 완충지가 아니라 세계를 안정시키는 교량국가의 역할을 스스로 수립하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체험! 역사현장

평화는 선언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엄혹한 현실이라도 연대와 협력을 이뤄낸다면 굳건히 유지할 수 있다. 한국은 긴장과 모순 관계의 국제정치 난제를 풀기 위해 국력과 지혜를 갖춰야 한다. 우리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냉철한 전략을 수립해야만 진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꼭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김상규(金詳圭, Kim, Sang-kyou)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한양대학교 전략정보학과 겸임교수
한양대학교에서 학사, 석사를 받고, 칭화대학(清華大學)에서 박사
를 받았다. 한양대학교 연구조교수 및 Post Doctor,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 국제문제연구소(Sciences Po CERI) 방문 학자, 고려
대학교, 동덕여대,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에서 강의하였다.

‘시선’이 교차하는 ‘대화’의 장: 2025 한일 국제학술회의 <일본에서 본 한일관계>

이경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새로운 행사를 시작하며

지난 7월 21일 열린 한일 국제학술회의 <일본에서 본 한일관계: 사회·역사·정치>는 올해부터 재단에서 새롭게 시작한 학술행사다. 동북아시아 역사문제를 연구하는 우리 재단에서 ‘한일’을 타이틀로 내건 행사는 결코 적지 않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으로, 현대 한일관계를 규정해 온 역사적 전환점을 맞는 만큼 그 의미가 남달랐다. 이에 재단뿐만 아니라 여러 학술·교육·연구 기관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한일’ 관련 행사가 열렸다.

이번 학술회의 또한 그러한 흐름의 일환일까? 혹은 한일관계가 주목받는 올해의 분위기 속에 기획된 단발성 행사에 그칠까? 솔직히 기획 초기 단계에서는 이 회의가 일회성 시도에 그칠지, 지속적인 학술교류의 시작이 될지 확실치 않았다. 하지만 거창한 기획 의도는 아니었더라도 회의를 구성하는 데 몇 가지 분명한 기준은 마련하였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 회의의 성격을 특징짓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지난 7월 21일 열린 한일 국제학술회의 <일본에서 본 한일관계:
사회·역사·정치>는 올해부터 재단에서 새롭게 시작한 학술행사다. ...
이번 회의는 일본 내 한국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차세대 연구자 중심의 학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하였다.

”

첫째, 일본에서 한국 관련 연구에 종사하는 일본인 연구자를 초청할 것, 둘째, 대상을 40대 중반까지의 차세대 연구자로 한정할 것, 셋째, 연구 분야는 정치·역사·문화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시대 또한 고대에서 근현대까지 가능한 한 폭넓게 아우를 것이었다. 물론 연구 실적에 관한 세부 기준도 면밀히 검토했지만, 이 세 가지가 대체로 회의의 골격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이번 회의는 일본 내 한국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차세대 연구자 중심의 학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하였다.

2. '시선'은 폭력이다?

하지만 사실 회의를 준비하면서 '일본에서 본'이라고 표현된 제목에 위화감을 느끼는 이들도 많지 않을까 걱정했다. 물론 일본에서 한국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일은 중요하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젊은 연구자들이 어떤 시각으로 한국에 접근하는지를 살피는 일은, 역으로 일본 사회의 변화를 조명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을 불러온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

떠한 의미를 갖는지, 권력과 시선의 관계를 파헤쳐 온 현대 사상사적 논의를 떠올릴 때 일말의 우려를 떨칠 수가 없었다. 가령 사르트르는 그들의 시선을 지옥이라 하지 않았던가.¹ 푸코는 시선이 어떻게 권력과 연루되어 있는지,² 사이드는 그것이 어떻게 세계사적 인식 구도를 생산했는지,³ 나아가 파농은 그 시선이 얼마나 처절하게 정신을 분열시키는 폭력 인지를 말해주지 않았던가.⁴

그렇다면 이 회의는 혹여나 ‘제국의 시선’을 재호출하는 것은 아닌지, 담당자로서 철저한 자기검열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만큼 제국 식민 지배의 역사가 남긴 과오는 깊고, 그 망령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3. ‘대화’의 현장에서

그러나 학술회의가 시작되자 나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음이 곧 드러났다. 회의에서는 일본인 연구자 5명이 각자의 문제의식과 그동안의 연구성과에 대해 발표했고, 이에 상응하는 분야의 한국인 연구자 5명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렇게 한일 연구자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눈 현장은 곧 경청과 발견, 흥미와 공감으로 가득 채워졌다. 물론 약간의 긴장이 감도는 순간도 없지 않았지만, 학문적 깊이만큼이나 정제된 의견

- 1 장 폴 사르트르 지음, 변광배 옮김, 2024, 『존재와 무: 현상학적 존재론 시론』, 민음사.
- 2 미셸 푸코 지음, 이규현 옮김, 2020, 『광기의 역사』, 나남출판.
- 3 에드워드 사이드 지음, 박홍규 옮김, 2018,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 4 프란츠 파농 지음, 이석호 옮김, 2003, 『검은 피부, 하얀 가면』, 도서출판 인간사랑.

“
한일 연구자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눈 현장은 곧 경청과 발견, 흥미와 공감으로
가득 채워졌다. 물론 약간의 긴장이 감도는 순간도 없지 않았지만,
학문적 깊이만큼이나 정제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

교환이 이루어졌다. 마치 교차하는 양자의 시선이 학술을 매개로 근대의 주객관계를 지양해 나가는 듯한, 이를테면 헤겔의 변증법적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면 너무 지나친 묘사일까. 어쨌든 여기서 그날 펼쳐진 대화의 현장을 되새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발표에서 나리타 치히로(리쓰메이칸대학)⁵는 「오키나와 반환과 한일 관계」를 주제로 냉전시기 동북아 국제 정세 속에서 오키나와의 귀속과 미군기지 문제가 어떻게 한국의 안보 인식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혔다. 이승만 정권은 오키나와의 일본 반환을 ‘식민지화’로 간주하여 류큐 독립을 주장하는 민간반공조직(APACL)에 접근했다면, 박정희 정권은 ‘핵무기 제외, 일본 본토와 같은 수준(核抜き・本土並み)’이라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안보 위기로 인식하여 미일 교섭에 개입하려고 했다. 이처럼 반환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두 정권 모두 안보 중심으로 오키나와 기지의 중요성을 최우선시했다. 이에 공준환(서울대학교)은 일본을 넘어 동아시아 냉전체제 속에서 오키나와 문제를 다룬 중요성을 평가하면서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이 체제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반환

5 나리타 치히로 지음, 임경화 옮김, 2022, 『오키나와 반환과 동아시아 냉전체제: 류큐/오키나와의 귀속과 기지 문제의 변용』, 소명.



다카하시 유코는 재일한인피폭자운동이 분단과 냉전에 일으킨 균열에 주목하며, 역사적 경험으로서 운동이 지향한 '통일'의 의미를 강조했다. 출처: 동북아역사재단

이후의 한일관계와 오키나와를 추적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두 번째로 다카하시 유코(오사카공립대학)⁶는 「재일 한인 원폭피해자가 지향한 ‘통일’과 연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1945년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 당시 피폭당한 조선인 피해자들은 해방 후 남한과 북한, 그리고 일본으로 흩어졌으며, 냉전체제하의 동아시아에서 분단과 배제에 직면해야 했다. 발표에서는 특히 재일한인피폭자운동에 주목하여, 이들이 피폭 경험을 공통분모로 남북한과 일본에 흩어진 동포들과 연대하려는 독자적인 ‘통일’을 지향했음을 역설했다. 이에 오은정(강원대학교)은 재

6 Yuko Takahashi, 2025, *Korean nuclear diaspora: redress movement of Korean atomic-bomb victims in Japan*, Lanham: Lexington Books.

일한인피폭자운동이 조선인 원폭피해자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술적으로 다른 연구가 드물었다는 점에서 다카하시의 연구를 평가했다. 동시에 재일한인피폭자운동의 ‘통일’이 한반도의 통일 인식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개념 사용의 면밀함을 요청했다. 재북피폭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냉전질서의 영향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 과정과의 연관성도 살펴볼 필요성을 지적했다.

세 번째로 이토 슌스케(후쿠시마대학)⁷는 「근대 이행기 조선의 국가권력 위상과 민중: 왕권·경찰을 대상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갑오개혁에 관한 기존의 연구시각(내재적 발전론, 국민국가론)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선 고유의 역사적 맥락, 개혁의 과정과 실태, 민중의 반응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개혁의 본질을 살폈다. 특히 경찰개혁에서 온건개화파에 대한 일본의 개입이 개혁을 강권적인 방식으로 변모시킨 점, 이로 말미암아 민중 반발이 거세져 항일의병운동으로 이어졌음을 밝혔다. 이에 양진아(한국학중앙연구원)는 논조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왕권’에 대한 입장 해석에 이의를 제기했다. 온건개화파는 일관되게 왕실의 권력 행사를 견제했으며, 박영효 역시 왕권 강화를 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중의 모습을 신문매체를 통해 파악하는 방법론적 한계를 지적했다.

네 번째로 이이쿠라 에리이(가나자와대학)⁸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초기 민간인 학살로 보는 일본 식민지배의 ‘부(負)의 유산’: 여수·순천항쟁

7 伊藤俊介, 2022, 『近代朝鮮の甲午改革と王権・警察・民衆』, 有志舎.

8 飯倉恵里衣, 2021, 『満洲国軍朝鮮人の植民地解放前後史—日本植民地下の軍事経験と韓国軍への連続性』, 有志舎.

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여순항쟁 당시 민간인 학살을 주도한 지휘관 김백일은 식민지기 간도특설대 장교로서 민간인 학살 경험이 있었다. 여순작전에 투입된 그는 ‘계엄령 선포문’을 독단적으로 발표하여 만주에서 실시한 ‘즉결처분’을 재현했다. 이처럼 이이쿠라의 연구는 식민지 군사경험이 해방 후 국가폭력으로 이어진 과정을 계엄령의 전승이라는 관점에서 추적한 것이다. 이에 박완(숙명여대)은 세밀한 실증연구에 경의를 표하면서도 식민경험에 대한 인과론적 접근에 유보적 입장을 제시했다. 해방 후 북한에서도 민간인 학살이 발생했으며, 그 배경에 스탈린 체제의 ‘숙청’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존재했을 가능성 등 여타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일을 넘어 세계사적 관점, 혹은 냉전과 탈식민이라는 관점의 도입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오가타 요시히로(후쿠오카대학)⁹는 「한일관계 속 재일조선인과 한국/조선」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재일조선인의 존재를 둘러싸고 질적, 양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었지만, 그는 한국과의 관계성에 주목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이번 발표에서는 해방 후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를 둘러싼 한미일의 개입방식을 개관하면서 한국 정부의 역할을 조명했다. 특히 재일조선인을 국민으로 확정하기 위해 ‘한국’이라는 등록 표기를 요구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본래 한반도라는 지역명을 가리키던 ‘조선’이 어떻게 ‘북한’으로 의미화되었는지 밝혔다. 이처럼 국민국가(nation-state)의 틀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존재를 통해 한일의 국가적 본질을 되묻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신재준(전주

9 緒方義広, 2023, 『韓国という鏡—新しい日韓関係の座標軸を求めて』, 高文研.

“

걸음마 단계에서 시작한 이번 기획은 한일의 젊은 연구자들의 역량 덕분에 무사히 ‘대화의 장’을 성사할 수 있었다. 거기에는 타인에게 수치를 불러일으키고 감시와 통제로 권력을 내면화시키고 특정한 표상 아래 정신분열을 유발하는, ‘식민주의적 시선’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광복/패전 후부터 한일관계가 쌓아온 학술적 자산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

교육대학교)은 한국과 재일조선인의 관계성 규명이 오늘날 정책에서 정체성, 디아스포라 문제까지 확대된 기존 연구에 어떠한 이해를 더할 수 있을지, 연구의 인식론적 공헌을 타진했다. 또한 통상 ‘기민정책’으로 비판받는 한국 정부의 정책을 이승만, 박정희 등 정권별로 검토할 필요성과, 오늘날의 법적 구분이 갖는 한계 등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4. 미래를 바라보며

걸음마 단계에서 시작한 이번 기획은 한일의 젊은 연구자들의 역량 덕분에 무사히 ‘대화의 장’을 성사할 수 있었다. 거기에는 타인에게 수치를 불러일으키고 감시와 통제로 권력을 내면화시키고 특정한 표상 아래 정신분열을 유발하는 ‘식민주의적 시선’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광복/패전 후부터 한일관계가 쌓아온 학술적 자산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역사인식을 둘러싼 공방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토양 역시 이와 같은 현장에서 자라날 것이라 믿는다.

일본에서 참석한 분들에게도 귀한 소감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일본에서 한국 관련 연구자가 분야를 넘어 모이는 기회의 희귀성, 세대 간 편차



학술회의는 각 발표의 독자성을 부각하면서도 동아시아의 경험들이 서로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새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출처: 동북아역사재단

와 소통, 육성의 어려움은 기획 단계에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일본의 현황이자 이 회의의 의의와 필요성을 확인하는 의견이었다고 생각한다.

각 발표가 지닌 주제의 크기와 깊이를 고려할 때 발표 간, 세션 간의 유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역시 큰 고민거리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 정치사 안에 갇힌 ‘오키나와 문제’를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한국과 관련시켜 검토한 나리타의 발표는 냉전 구조 속에서 이산과 분단, 배제를 겪은 ‘조선인 피폭자’들의 전후사를 연대운동의 관점에서 조명한 다카하시의 발표와 맞닿아 있었다. 또한 전후 ‘재일조선인’이 다루어진 방식을 한국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검토한 오가타의 발표는 정치(나리타)와 운동(다카하시)의 근저에 깔린 ‘삶’의 문제를 구획 불가능한 ‘존재’를 통해 보여

2025년 한일 국제학술회의

일본에서 본 한일관계 : 사회·역사·정치

일시 | 2025. 7. 21.(MON) 장소 |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11F)

개회식	사회: 이석재 연구장학실 소장
10:00-10:10	환영사: 동북아역사재단 박지환 이사장
10:10-10:30	기념 촬영 및 중대 영사
제 1 부	사회
10:30-11:00	【발표 1】 오카야마 현청과 한일관계 - 150년과 새로운 한일관계(간단)
11:00-11:30	【발표 2】 재일 한일 청년세대와의 사회적 역할과 연대 - 21세대의 새로운 (신)사회(간단)
11:30-12:30	【발표 3】 공존한 (사실적), 공존할 (상징적) - 오한
12:30-14:00	오찬
제 2 부	역사·정치
14:00-14:30	【발표 4】 근대 이념의 토착적 국가관과 현실과 이론의 괴리 - 이석재 연구장학실(간단)
14:30-15:00	【발표 5】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초기 대한국립론과 일본 '민중'의 등장 - 이석재 연구장학실(간단)
15:00-15:30	【발표 6】 한일관계 속 재일조선인의 활동(재일조선인(재일한국인)) - 오카야마 시립대학(간단)
15:30-16:30	【발표 7】 양언어 (한국어/중국어)의 활용 (국영어, 신중용) - 신중용(간단)
16:30-16:45	축사 및 중대 영사
종료	사회: 이석재 연구장학실 소장
16:45-17:30	축사
17:30	폐회

동북아역사재단

2025년 韓日國際學術會議

日本からみた 韓日関係 : 社会·歴史·政治

日時 | 2025.7.21.(MON) 場所 | 東北亜歴史財団 大会議室(11F)

開会式	司会: 李成勳 研究政策室 室長
10:00-10:10	歓迎の挨拶: 朴智煥 理事長
10:10-10:30	記念撮影および会場整理
第1部	社会
10:30-11:00	【報告 1】 沖繩道廳と韓日関係 田原千尋 (立命館大学)
11:00-11:30	【報告 2】 在日コリアン労働者が抱負した「韓一」意識 - 高橋優子 (大阪道立大学)
11:30-12:30	【討論 1】 乳閥論 (ソウル大) 崔敏英 (立命大)
12:30-14:00	昼食
第2部	歴史·政治
14:00-14:30	【報告 3】 近代朝鮮の韓日関係における国家権力の位階と変遷 李錫 鄭賢模(立命大) 伊藤洋介(福井大)
14:30-15:00	【報告 4】 韓国臨時政府の臨時人選と韓日関係(在日朝鮮労働者中心) '韓の意識' 鄭本憲(京大) 李成勳(立命大)
15:00-15:30	【報告 5】 韓日関係における在日朝鮮人(韓日関係) 韓方龍(福井大)
15:30-16:30	【討論 2】 朝鮮論 (韓国中央研究院, 朴光(東国大), 李龍(全南大))
16:30-16:45	休憩および会場整理
終会式	司会: 李成勳 研究政策室 研究委員
16:45-17:30	閉会
17:30	

동북아역사재단

〈일본에서 본 한일관계〉 포스터 출처: 동북아역사재단

줬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연구가 다루고 있는 문제는 동아시아, 나아가 근대의 세계사가 끊임없이 산출해 온 ‘문턱(閾, threshold)’¹⁰—오키나와, 피폭자, 재일—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토와 이이쿠라의 발표 역시 무관하지 않다. 이토가 제기한 세 번째 관점, 즉 ‘민중’의 반응이 전후 일본의 민중사 연구에 깊이 뿌리를 둔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그 연관성을 엿볼 수

¹⁰ 조르조 아감벤 지음, 박진우 옮김, 2008,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벗겨벗은 생명』, 새물결.

“
이렇게 차근차근 관계를 쌓아 역량을 키운 다음에
역사현안과 마주한다면, 지금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내일’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

있다. 이이쿠라의 발표가 군대라는 조직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다루었다면, 경찰 개혁에서 민중의 반응으로 초점을 옮겨 간 이토의 발표 역시 국가권력의 ‘저편’에 내몰린 존재들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토대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교훈에서 향후 한일 국제회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도 저절로 얻어졌다. 당장의 과제로는 첫째 한일 연구자 간의 대화와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둘째 중견 세대 참가자를 확대하여 세대 간 편차를 소통시키고, 셋째 분야별 구성에서 주제별 세션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논의의 유기성을 제고하려고 한다. 이렇게 차근차근 관계를 쌓아 역량을 키운 다음에 역사현안과 마주한다면, 지금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내일’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이 글을 작성하는 사이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내각이 탄생했다. 앞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 함께 본다면, 한일 양국 사회에서 상징적으로 ‘한국적’, ‘일본적’이라고 여겨지는 인물이 각각 정권의 수장에 오른 셈이다. 그 이미지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으며 양국에서 ‘악몽의 재현’이 우려되었지만, 양국 관계는 예상보다 우호적인 분위기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그 협력의 무대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민간협력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사회와 문화에 한정되어 있다. 물론 이들 분야의 중요

성을 간과할 수 없지만, 역사는 여전히 블랙박스로 남아 있다. 양국이 그 상자를 여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지만, 적어도 기존의 열쇠로는 더 이상 ‘아름다운 미래’가 나오지 않는다는 인식은 공유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어떤 열쇠로 ‘역사 = 블랙박스’를 열 것인가. 새로운 관계 구축의 단서는 오히려 학술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정치가 역사를 배울 차례가 되었음을 알리는 장으로서, 이번 회의의 가치를 되새겨본다.



이경미(李慶美, Lee, Kyung-mi)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외교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근현대 한일관계를 사상사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근대 지식의 수용과 변용, 내셔널리즘이 작동하는 현장에서 삶의 문제를 성찰할 수 있는 주제에 관심이 많다. 재단에서는 관동대지진 학살문제, 원폭피해자 문제 등을 다루면서 역사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대 동아시아 역사상의 이해와 협력으로 가는 첫걸음: 2025 한중 역사·고고학 분야 학술회의

이규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현재진행형인 고대 동아시아 역사상의 갈등

고대 동아시아의 역사를 둘러싼 한중 양국의 이해가 많은 차이를 드러낸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 초에 발견된 고구려 금인(金印) 역시 3세기 후반을 바라보는 두 나라 학계의 인식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물질자료였다. 국내에서는 고구려의 첫 금인이라는 부분에 주목하여 당시 국제질서 속 고구려의 위상에 주목하였고,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발견된 고구려 인장을 근거로 당시 중원 왕조였던 진(晉)이 고구려를 철저히 통제·관리·통제한 증거라고 하였다. 작은 도장 하나로도 양국 학계의 이해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지나간 역사가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역사가 그저 과거의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재단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학계와 상호 간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취지 아래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때

“
한국 고대 동아시아의 역사, 특히 고구려와 발해 등
한반도 이북 지역의 역사유적은 중국의 협조가 있어야만 접근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주장 내면에 있는 논리 또한
똑바로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로는 중국 측의 사정으로,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해외로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해 늘 원활한 소통이 이어지지 않는 못했다. 그럼에도 중국 학계와의 관계는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 고대 동아시아의 역사, 특히 고구려와 발해 등 한반도 이북 지역의 역사유적은 중국의 협조가 있어야만 접근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주장 내면에 있는 논리 또한 똑바로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협력과 상생을 위한 세 번째 발걸음

이러한 배경하에 재단은 2023년부터 중국 학계와 역사, 고고학 분야 전문 연구자들의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 및 한중 관계 악화로 인해 위축된 학술교류를 재개함으로써 양국 간의 학술교류를 공고히 하고, 최신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중심의 역사인식을 직접 들어봄으로써 그들에 대한 학술적인 비판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학술의 장에서 우리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학술교류라는 것은 연구성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진행하는 사람들과의 교류 역시 중요한 부분이 된다. 동북공정으로 촉발된 한

“
역사의 정치적 도구화를 벗어날 수 있는 밑바탕이 형성되고,
그를 통해 한중 역사갈등이 해소되는 길잡이가 되길 바라는 것이
이 행사의 진정한 목적이었다.
”

중 역사갈등이 20년을 채운 지금, 당사와 지금의 연구자의 인적 구성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기존부터 교류해 왔던 연구자뿐만 아니라 신진연구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지속적이고 협력 가능한 다방면의 학술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역사의 정치적 도구화를 벗어날 수 있는 밑바탕이 형성되고, 그를 통해 한중 역사갈등이 해소되는 길잡이가 되길 바라는 것이 이 행사의 진정한 목적이었다

3. 학술회의 살펴보기

이번 학술회의는 총 6개의 발표를 2개 세션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1부에서는 ‘동아시아 속 한중의 교류와 갈등’이라는 주제로 3개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는 ‘창해군·제1현도군의 설치와 재지세력의 동향’(이규호)으로, 발표자는 그동안 창해군 설치의 계기가 된 예군(叢君) 남려(南閩) 집단을 압록강 중상류~동해안 북부에 걸친 예족 사회로 이해하는 기존의 논의에 더해, 예군이라는 칭호에 주목했다. 예군은 한에서 당시 예족 집단의 대표자에게 준 칭호로서 자신들의 근현 통치에 협력한다는 의미로 보았으며, 그것은 당시 모피 등으로 대표되는 예족 사회의 특산품과 한의 위세품을 매개로 한 교역망의 유지가 양측의 이해에 합치했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를 통해 제1현도군의 이동 역시 교역망을 둘러

싼 갈등의 결과물로 파악했다.

두 번째 발표는 ‘4~6세기 동아시아 순수비(巡狩碑)의 초보적 탐구’(다이 웨이홍, 戴衛紅)라는 주제로, 북위 시기 순수비와 신라의 순수비를 비교검 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올 8월 내몽고에서 새롭게 발견된 북 위 순수비를 소개함으로써 북위 시기 연구에 대한 확장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양국의 순수비는 왕권 선양, 영토 확장, 수행 관원의 열거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호한(胡漢) 이원통치라는 북위 순수비와 불교적, 유가 덕치이념이 깃든 행정문서적 성격의 신라 순수비라는 차이점도 지적 했다.

세 번째 발표는 ‘동아시아 세계론과 동부유라시아론의 재검토’(권순홍) 라는 주제로, 최근 한중일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두 이론의 문 제점과 중국 측의 이해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중국 학계가 최근 동 부유라시아론을 중화민족공동체론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지적 하면서, 본래 동부유라시아론이 강조했던 주변지역의 주체성과 상호 네 트워크라는 문제의식을 중원 중심의 일원적 서사의 강화로 변화시킨 것 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다원성과 복수의 관 계망을 전제로 하는 중층적 공동체 개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2부 발표는 ‘7세기 이후 동아시아 국제 정세의 변화’라는 주제로 3개 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네 번째 발표는 ‘당의 요동 군사작전과 유라시아 동부의 연동 관계’(평리권, 馮立君)로, 당과 고구려·백제의 전쟁은 그 안에 돌궐, 거란, 고창 등 다양한 종족 집단이 참여한 국제적 전쟁이었음을 언 급하였다. 이에 따라 당의 동방, 북방, 서방의 국제관계가 유기적으로 반 응하여 고구려와 백제의 멸망, 토번의 발흥, 발해의 건국까지 영향을 미 쳤다고 하였다. 즉, 동부 유라시아의 광범위한 연쇄적 파동을 일으킨 축

매가 당의 요동 군사작전이었으며, 당은 중심적 지위를 가졌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섯 번째 발표는 ‘발해국 도성의 조영 순서 재검토’(량후이리, 梁會麗)라는 주제로, 발해의 서고성, 동경성, 팔련성의 조영 순서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최근의 고고발굴자료 분석을 더하여 서고성(서경)과 상경성 궁성이 제일 먼저 축조되었고, 그 다음이 팔련성(동경), 마지막으로 상경성 황성과 광성이 축조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고성은 기왕의 인식과 달리 훨씬 긴 기간 동안 도성으로 기능한 것에 비해, 팔련성은 계획 초부터 배도(陪都)의 역할로 축조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후 794년 상경으로 재천도하면서 상경성이 유일한 도성으로서의 위상을 지녔다고 하였다.

여섯 번째 발표는 ‘발해 상경성 주변 고분군 연구’(김은옥)로, 상경성 주변의 다양한 고분군을 소개하고 각각의 특징을 소개하였다. 그 결과 상경성 주변에서는 발해 초기까지 유행했던 토광묘나 화장 풍습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반면, 상경성 인근의 고분이 대부분 석축묘라고 하였다. 고분의 규모나 부장품 등에 따라 등급은 구분지을 수 있지만, 그러한 등급에 상관 없이 석축묘가 유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하였다. 이것은 앞서기 고분군인 육정산고분군에서 토광묘와 화장묘가 다수 발견되는 것과 대비됨을 밝혔다.

4. 맺음말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많은 사람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토론 과정에서 자료에 대한 인식 차이, 역사해석의 문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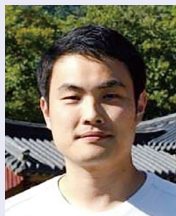
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이러한 교류와 소통의 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은 한중 양국 학자들이 모두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학술회의에서는 견해차가 있는 것 같아도, 학문적 호기심이 원동력이 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이 정해진 시간을 넘어서까지 이어졌다. 이런 점이 바로 양국의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한 이유이자, 문제 해결의 바탕이 된다.

학술회의의 다음 날에는 서울 시내 동아시아 고대사를 둘러볼 수 있는 박물관 두 곳을 방문하였다. 오전에는 한성백제박물관에 방문하여 중국에서 아직 쉽게 접하기 어려운 한성 시기 백제의 최신 발굴 성과를 관람하였고, 오후에는 최근 해외 관광객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국립중앙



참가자들은 한국과 중국의 학술교류가 역사의 정치화를 지양함으로써, 양국 간 역사대화가 지속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랐다. 출처: 동북아역사재단

박물관 고대전시실을 관람하였다. 두 장소 모두 한국을 방문한 중국 학자들이 집중력을 갖고 관심 있게 지켜보는 모습을 보니, 글로 접하는 것만 큼이나 현장에서의 경험이 중요함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재단의 한중 역사·고고학 분야 학술대회가 다양한 주제와 인력 구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를 통해 한중 간의 역사문제가 현명한 방향으로 헤쳐나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규호(李圭鎬, Lee, Gyu-ho)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동국대학교 사학과에서 ‘고구려 관제 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구려의 발전 과정과 정치 제도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고구려와 주변국이 주고받은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침탈 120년 역사를 돌아보며

2025년 독도연구소 콜로키움

장정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현재진행형인 일본의 독도 침탈

울릉도와 독도는 신라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512) 이래로 한반도의 구심력에 들어왔지만, 1900년에 이르러서야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편성되었다. 이해 10월 25일,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도군의 부속도서로 명시하였다. 주지하듯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울릉군)와 민간 단체들은 ‘독도의 날’로 지정하여 이를 기념하며, 재단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콜로키움을 열어 왔다. 독도연구소 콜로키움은 2월과 8월 혹은 9월에 개최되는 학술회의와 달리 주로 국내의 유관 기관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독도 현안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의 과제를 논의하고, 연구·교육·홍보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었다.

올해는 유독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자주 접하였다. 일본의 왜곡된 주장은 시마네현의 불법 편입이 이루어진 1905년까지 한국이 독도를 점유한 적이 없고, 오히려 17세기 이래로 일본인들의 활동무대였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같은 주장은 3월에 발간된 『제5기 죽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구』 최종보고서에 집약되어 있으며, 일본 외무성에서 발간한 『죽도 문제를 이해하는 10가지 포인트』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은 올해로 20년을 맞은 2월 시마네현의 ‘죽도(竹島)의 날’ 행사, 3월 교과서 검정, 4월 외교청서, 7월 방위백서 등에도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 반복적으로 발신하였다. 아울러 4월 18일에 전면 개편을 거쳐 재개관한 도쿄 소재 영토주권전시관에도 같은 논리가 사용되었다.

독도연구소는 올해 2월, 8월, 10월에 개최된 학술회의·콜로키움을 통해서 일본의 왜곡된 주장을 비판하였다. 특히 8월 학술회의와 10월 콜로키움에서는 역사학·정치학·국제법 등 제 분야에 걸쳐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8월 학술회의에서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주권, 인권, 영토를 논하였고,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1905년 시마네현의 불법적인 독도 편입 이래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침탈 역사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2. 콜로키움 토크아보기

이번 콜로키움은 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들이 주제 발표를 진행한 것이 특징이다. 시마네현의 불법적인 독도 편입으로부터 120년을 맞은 시점에 독도연구소의 구성원 모두가 한 해 동안 이 문제에 역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석주희, 서진웅 연구위원은 8월 학술회의에서 ‘한국의 독도 주권과 일본의 침탈’ 세션을 통해서 연구성과를 발표했었다. 서진웅 연구위원은 현재 일본 국제법학계의 주류를 점하는 ‘대체적 권원론’이 무주지 선점, 고유영토론의 대안으로 제시된 ‘궁여지책’임을 강조했다. 석주



장정수 연구위원의 발표 모습(2025. 10. 23.) 출처: 동북아역사재단

희 연구위원은 200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독도 관련 정책이 강화되는 배경과 과정을 분석했다. 10월 콜로키움은 더욱 선명하게 일본의 독도 ‘침탈’에 주목한 학술행사로서 각각 2개의 주제 발표를 담은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제1세션은 <울릉도쟁계 이후 한·일의 독도 인식>, 제2세션은 <독도의 지정학과 국제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제1세션의 첫 번째 발표에서 필자는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가 ‘개찬(改竄)’으로 평가절하하는 『동국문헌비고』의 세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루었다. 시모조의 개찬설은 우산도가 곧 일본인들이 일컫는 ‘송도’라는 『동국문헌비고』 세주의 내용이 정작 근거로 활용된 『동국여지지』의 그것

과 다르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 발간된 『제5기 죽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최종보고서에서 그의 이 같은 논조는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반해 필자는 전통시대 울릉도·독도 관련 기록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업데이트되었음을 강조하고, 『동국문헌비고』의 제주 역시 개찬이 아닌 수정·보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록의 수정·보완은 ‘울릉도쟁계’를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조선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자리했음을 규명하였다.

이어서 김종근 연구위원은 1870~1890년대 일본 수로기관이 제작한 초기 한반도의 해도(海圖)를 분석하였다. 그는 48종의 해도를 ‘복제’, ‘실측’, ‘편집’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뒤,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전 일본이 조선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불법적으로 측량·제작한 3종의 지도를 새롭게 제시하였다. 아울러 ‘조선전안’의 1882년·1896년판 해도가 영국과 러시아의 해도를 단순히 복제한 것이 아니며, 일본 해군이 침탈을 위한 자료로서 의도적으로 측량한 성과를 반영한 것임을 밝혔다. 김종근 연구위원은 일본의 독도 침탈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제2세션의 첫 번째 발표자인 김영수 연구위원은 “러·일 전쟁 전후 마한의 지정학적으로 바라본 동아시아 그리고 독도”를 주제로 미국의 해군 전략가 마한의 지정학적 주장을 분석하였다. 마한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해양 세력 확보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한 인물이다. 김영수 연구위원은 해양을 통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오늘날의 미·중 패권 경쟁이나 미국 인·태 전략의 역사적 배경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러·일 전쟁 당시의 동해해전은 울릉도·독도의 인근 해역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고,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위치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시사했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홍성근 연구위원은 1953~1965년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일본 정부가 주고받은 8건의 외교문서(정부 견해, 외교문서)를 검토하여 ‘초기 독도 논쟁’의 변천 과정을 정리하였다. 그는 이 시기에 걸쳐 지속된 양국의 독도 영유권 논쟁이 가진 구조와 전개 과정을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1905년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편입이 배태한 논쟁의 불씨가 1947년 일본의 독도 도발로 발화되었고, 양국의 주장·반박·재반박을 통해서 변화했음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아울러 쟁점이 미묘하게 변화해 가는 지점들을 제시하면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홍성근 연구위원은 논쟁의 실질적 변화는 사료와 과제 발굴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면서, 우리의 논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학제 간 연구, 지속적 사료 발굴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3. 정체와 답습 그리고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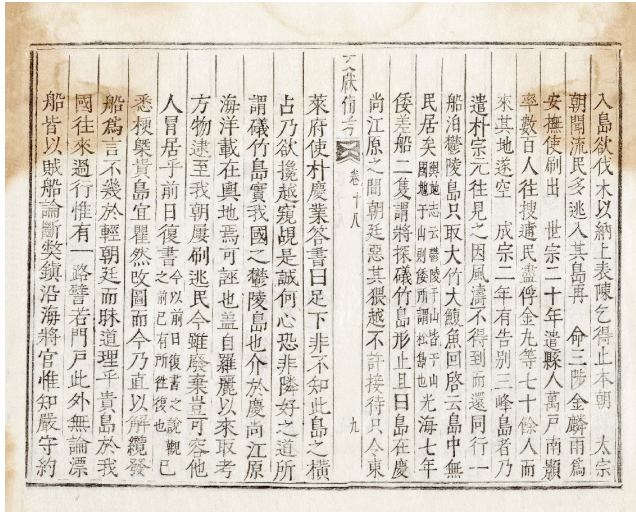
이번 콜로키움은 120년에 걸친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동시에 한국의 독도 연구 역시 좀 더 넓은 시각에서 그 저변을 넓혀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그동안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관된 틀을 유지해 왔고, 이는 무주지 선점, 고유영토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관련 해석 등 상호 모순으로 가득한 일본의 그것과 달리 매우 선명하다. 다만, 독도의 역사적 권원에 관한 설명에는 다소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고대에서 고려시대로, 다시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울릉도·독도의 존재에 대한 인식 양태를 단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
신진학자의 발굴, 논거의 보완,
학제간 연구, 꾸준한 사료 발굴 등은 향후의 과제로 남았다.
”

일본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는 단순한 구조도 극복해야 한다. 일례로 일본이 ‘무주지 선점’을 주장하면서 조선의 ‘공도정책’을 지적하고 나서자, 한국은 ‘쇄출정책’이 보다 적합한 용어라고 반박했다. 거주지를 내지로 이주시켰을 뿐, 섬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공도와 쇄출은 연동하기 때문에 다른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한국의 역사학계는 15~17세기 전반 조선의 도서정책을 공도정책으로 이해한다. 차이가 있다면 17세기 후반 이후 입도정책으로 전환하여 도서 개발에 나섰다는 점이다. 즉, 일본에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용어의 사용을 꺼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번 콜로키움에서 홍성근 연구위원의 발표와 토론자들에 의해서 이 문제가 다각도로 제기되었다. 신진학자의 발굴, 논거의 보완, 학제간 연구, 꾸준한 사료 발굴 등은 향후의 과제로 남았다. 초기 독도 논쟁이 외교적 차원에서 전개된 탓에 오히려 연구의 유연성은 위축된 감이 없지 않은 것이다. 이는 한국의 독도 연구에서 극복되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동국문헌비고』의 세주를 분석하면서 그 전후 시기에 확연한 차이가 있었음을 밝혔다. 이전에도 몇몇 논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내용이지만, 필자는 인식의 변화에 연동하는 역사 서술의 추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1차적으로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신라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을 기술한 것은 중요한 대목이다. 이를 통해서 이 사건이 개인의 업적이나 신라의 소국 병합 차원에서, 조선의 강역에 속하게 된



『동국문헌비고』 여지도

우측면에 작은 글씨로 '우산도가 곧 송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계기라는 새로운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았다. 다시 말해, 조선 세종 연간에 이르러 이 사건이 독도 영유의 역사적 권원으로 명시되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발간한 관찬 지리지에 울릉도와 독도(우산도)를 자국령으로 기록하고, 그 권원으로 신라의 우산국 복속을 소개한 것은 이때부터 울릉도·독도가 우리 땅이 되었다고 인식했음을 뜻한다.

울릉도쟁계 이후에는 우산도의 실체가 더욱 명확해졌다. 울릉도쟁계와 그 이후 정기적으로 시행된 수도(搜討)를 통해 관련 지식이 축적된 결과, 일본인들이 송도라고 일컫는 섬이 곧 우산도라는 인식이 생겼다. 이 같은 서술은 조선의 문물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관찬 백과사전인 『동국문헌비고』에 반영되었다. 이후에 발간된 다양한 관찬 자료에 이 내용은 그대로 수록, 계승되었다. 그렇다면 적어도 『동국문헌비고』가 발간된 1770년 이후 조선은 '우산도=송도=독도'라는 이해가 형성되었다고 보

“
『동국문헌비고』가 발간된 1770년 이후
조선은 ‘우산도 = 송도 = 독도’라는 이해가 형성되었다. …
기존의 주장을 답습하기보다는 적극적인
학제 간 연구와 사료 발굴을 통해서 보다 생동감 넘치는 형태로
우리의 논리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

아야 할 것이다. 이를 개찬이라고 비판한 시모조 마사오 역시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였다는 ‘유일한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1900년 울릉도가 울도군이라는 행정구역으로 편성되면서 독도가 부속되었음을 감안하면 독도에 대한 인식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단계적으로 변화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한국의 영유권 주장 역시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이 수차례 거론되었다. 한국의 독도 영유에도 불구하고, 평행선을 달리며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독도 영유권의 논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장을 답습하기보다는 적극적인 학제 간 연구와 사료 발굴을 통해서 보다 생동감 넘치는 형태로 우리의 논리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독도의 역사는 주로 연표 형태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512년 신라의 우산국 복속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요 사건을 열거하는 방식이다. 일목요연해 보이지만, 사건 간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은 오히려 빈약한 편

이다. 전통시대에 해당하는 1900년 이전의 내용은 더욱 그러하다. 개별 사건을 ‘암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살아있는 독도의 역사를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아마도 이번 콜로키움의 최대 성과는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정연한 우리 이야기의 필요성이 제시된 것이 아닐까 한다. 기존의 틀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보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 학제 간 연구나 추가적인 사료 발굴이 절실하다. 여기서 사료는 단순히 독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파편에 국한되지 않는다. 시대별 도서정책이나 변경지역에 대한 연구 등으로 폭을 넓히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례로 수토제의 연구를 위해서 조선시대 강원도와 경상도 해안지역을 함께 살펴보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번 콜로키움은 시마네현의 불법적인 독도 편입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는 일본의 독도 침탈과 관련된 주장과 정책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를 ‘성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도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도 재확인하였다. 이것만으로도 이번 콜로키움의 의의는 작지 않다.



장정수(張禎洙, Jang, Jung-soo)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에서 조선후기사를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7세기를 중심으로 조선의 대외관계를 연구해 왔고, 변경·해양·도서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당대인들의 정서와 시각 안에서 한국과 중국·일본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동북아역사포커스

제15호 2025 겨울

발행일 2025년 12월 1일
등록번호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발행인 박지향
발행처 동북아역사재단
편집위원장 차재복
편집위원 박정애, 배현준, 이동욱, 이주연, 전영욱, 조호연, 홍성근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전화 02)2012-6039
팩스 02)2012-6154
구독 문의 및 독자 의견 nahfocus@nahf.or.kr
제작·인쇄 역사공간

ISSN 2950-9696

『동북아역사포커스』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www.nahf.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록된 글은 필자의 견해이며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비매콤

ISSN 2950-9696